



전북한 정치 사관 학교 교장 장학봉.

나는 1917년 4월 6일에 원동변강 수도 하바롭스크 시에서 탄생하였다. 당시 아버지는 하바롭스크 역전에서 노동자로 일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장공방이는 당시 다른 아들 3형제와 같이 원동변강 연해주 보빈시에는 구역 노보끼예프스크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당시 나의 할아버지 집에는 또 할아버지 형분이 계셨던바 그이름 장풍인이라고 불렀던바 나의 할아버지 형이었다. 내가 섬을 차리고 보니 할아버지 이름이나 또 큰 할아버지 이름이 전북 다 적으란 한 벼슬 칭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바, 공방은 공업을 지도하는 사람이고, 풍인은 장수이던바지 못하거니와 시인으로

해 명들 하시였다 하여 천 큰 할아버지는 유식한 건만 사실
어였다 때문에 동리아이들로 용여 놓고 천리공부를 식혔던
바 4도 6 세 되는 때 불어 큰 할아버지에게서 구학 천리
하늘천, 따지, 감을 현, 누를 황, 집우 집조를 배우고 그다
음해 4세 때 불어 신학 천리 - 그것은 좀 달으게 이르러와
- 하늘천, 따지, 날일, 달월, 허왕풍, 구름운, 비우, 어울로 등의
서화로 공부하였다. 천리 두권을 필하고 1926년 불어 한국인
노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러시아에 왔는가? 아버지의
할머니 '라사'에 의하면 나의 할아버지 당대에는 함경북도
부령읍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았는데 큰 할아버지도 거기서
단집에서 영간 노천이 살았으며 그집에는 자식들이 없었으며
큰 할아버지는 한을 서당에서 훈장질을 하였다고 하였다. 조선
이 함방되기 직전에 나의 할아버지 장승국 이와 둘째 아버지
장용국은 조선 정부군에서 병정사리를 하다가 조선이 함방 되니
달당 지휘관의 지도하에 일본 정권에 복종하지 않고 밀레를 받
대하여 투쟁하면서 안주에가지 밀어 들어왔다가 러시아
영토에 넘어왔다고 하였는데 그의 제일 큰 재장은 흥벌도
장군이였다고 하였다. 할아버지는 아들 4형제 - 장승국, 장
용국, 장성국 장세준 - 를 두었으나 만 무드러리 형제가 러시아
로 월경하였기 때문에 1912년에 원동변강 연해주에 집에
있는 아들 형제와 할머니와 함께 이주하였다. 큰 할아버지는 그
후에도 약 10여년간 계속 부령에 계시다가 큰 할아버지
세상 떠나신 다음 1922년에야 동생을 찾아서 러시아
로 넘어왔다. 러시아에 망명한 할아버지 일가는 연해주
비보시예스 구역 노보끼예프스크시 (조선말로 연추명)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다만 나의 부친만 집을 떠나 하바롭스크 시에서 일하였다. 1919년 조선에서 독립만세 차전이 있는 뒤에 원동에 살고 있던 한인들은 흥범도 독립군대를 더 강화하여 조선을 해방할것을 계획하고 그 군대를 더 강화하였다. 그것은 이제 모스크바에서 혁명이 승리하였으니 이제 붉은 군대가 원동에 나오면 힘을 합쳐서 조선도 해방되리라고 생각한것이다. 그러나 경반대로 원동에서 소비에트 제도를 수립하는 전쟁에서 흥범도 장군, 채예 장군, 한창걸 등 대장들이 지도하는 한인 비밀저항 부대들이 '많은 공로를 세웠지만 일제와 백제를 원동지역에서 몰아낸 다음 한인 비밀저항 부대는 전부다 무장해제를 당하였다. 이 당시에 많은 한인 전후원들은 조선 해방에 대한 열원의 성취되지 못한것을 애절하면서 눈물 흘린 다음 일부는 안주로 도주 넘어갔다.

나의 어머니 리마리나 (당시 러시아 극적이 일적한 사람은 전부다 공민증을 받을 당시 러시아 이름으로 교환하게 되었음)은 아버지가 비밀저항 부대에 증병 되었을시 나를 데리고 나의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 - 연후영으로 이사하여 갔다. 1923년에는 할아버지 집에는 전부다 가정은 아들 4형제 할아버지 2명 할머니 11명, 전부다 합하여 약 15명 식구가 살고 있었다. 그후 1923년에 곧 할아버지가 별세하시고 1925년에는 할아버지가 65세를 일기로 세상 떠났다 할아버지가 도라가신 다음 3년상을 치르고 아들 4형제는 전부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나의 아버지는 우리 오누이와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하바롭스크로 가고, 둘째 아버지는 스바스크 시로, 4재 삼촌은 블리보스크 시로

그러던 차에 9월 21일, 지금 기억되는 바 월요일이었는데, 고려공학교 14세 이상 전체 학생들과 교원일동은 하바롭스크에서 제일 큰 영화극장 "기간트"에서 중대한 문제로 회의를 일으키 전부다 거기에 몰이라고 하였다. 시간은 오전 중 학생들을 끌고 오고 오후 나시메라고 하였다. 우리들은 무슨 좋은 새 소식이나 있다가 생각하면서 나시 정각에 영화극장에 찾아가었다. 정각 나시가 되자 무대에는 시당 위원장, 시민청 위원장 시소베츠 위원장 3명이 몰으자, 시당 위원장이 말문을 작하면서, - 오늘 이 모임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소련 내 각의 1937년 8월 21일부 결정 "원동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전부 영주시켜 카삭스탄과 중앙아시아에 보낼 데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한인 공청원들과 한인 당원들의 연합 열성자 회의 개최를 선언한다고 하였다.

다음 계속하여 그는 상기 결정을 남독하는 것이었다. 이날 영화극장에는 우리 고종 학생 교직원 뿐만 아니라, 하바롭스크 시내에 있는 많은 기관들과 그 기관들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한인들은 다 몰렸던바, 하바롭스크 원동변강 고려인공산대학 전체 학생교직원, 원동 한인 출판사, 라디오 방송국, 시내 각 당 정권 기관, 내무성 계통, 각종 사설기관, 상업기관 각 생산기관에서 일하는 전체 직원들, 종합하여 거의 천명이나 몰여났다.

장내에서 시당 위원장의 당중앙과 중앙 정부의 결정 남독이 끝나자, 그 결정을 잘 집행함에 있어서 장내에 몰인 한인들의 방조를 받을 목적으로 연합 공청-당 열성자 회의를 소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의 반인인성, 각 민족들의 평등권에 대한 레닌적 민족정책의 위반, 각 민족의 자유적 거주지 선택에 대한 권리 위반 등에

그러던 차에 9월 21일, 지금 기억되는 바 월요일이었는데, 고려공학교 14세 이상 전체 학생들과 교원일동은 하바롭스크에서 제일 큰 영화극장 "기간트"에서 중대한 문제로 회의를 일으키 전부다 거기에 몰이라고 하였다. 시간은 오전 중 학생들을 끌고 오고 오후 나시메라고 하였다. 우리들은 무슨 좋은 새 소식이나 있다가 생각하면서 나시 정각에 영화극장에 찾아가었다. 정각 나시가 되자 무대에는 시당 위원장, 시민청 위원장 시소베츠 위원장 3명이 몰으자, 시당 위원장이 말문을 시작하면서, - 오늘 이 모임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소련 내 각의 1937년 8월 21일부 결정 "원동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전부 영주시켜 카사스한과 중앙아시아에 보낼데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한인공청원들과 한인당원들의 연합 열성자 회의 개최를 선언한다고 하였다.

다음 계속하여 그는 상기 결정을 남독하는 것이었다. 이날 영화극장에는 우리 고종 학생 교직원 뿐만 아니라, 하바롭스크 시내에 있는 많은 기관들과 그 기관들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한인들은 다 몰렸던바, 하바롭스크 원동변강 고려인공산대학 전체 학생교직원, 원동 한인 출판사, 라디오 방송국, 시내 각 당 정권 기관, 내무성 계통, 각종 사설기관, 상업기관 각 생산기관에서 일하는 전체 직원들, 종합하여 거의 천명이나 몰려났다.

장내에서 시당 위원장의 당중앙과 중앙정부의 결정 남독이 끝나자, 그 결정을 잘 집행함에 있어서 장내에 몰인 한인들의 방조를 받을 목적으로 연합공청-당 열성자 회의를 소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의 반인인성, 각 민족들의 평등권에 대한 레닌적 민족정책의 위반, 각 민족의 자유적 거주지 선택에 대한 권리 위반 등에

대한 질문과 그 결정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반대론이
 권권하게 나오면서 부분적 언변가들은 본대회에서 당중앙과
 중앙정부결정을 반대 항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할것을 창
 내에 몰인 관공들에게 호소하였다. 이런 분위기에 황당
 한 시당위원장은 언변가들의 출연을 중단하고 무대막을
 닫으면서 열성자 회의를 끝내리라고 하였다. 창내에 몰인
 한인 언변가들은 당중앙의 물건에 대하여 분노를 참지 못
 하며 비판하고 있었다. 몇분 지나 창내에는 벌써 영화구경
 관들이 몰려들어 있었고 열성자 회의에 참가하였던 한인
 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 하바롭스크 고중은 1935년에 준공된 원동에서도
 기타 다른 고중들에 비하여 자랑할만한 모범적 청사였다
 이시기에 있어서 원동에 살고있는 한인들의 문화는 최고봉에
 달하였고 전세계에 하나밖에 없었던 순결한 한인상범
 대학을 원동한인들은 가지고 있었다. 나는 당시 고중 학생
 으로서 그 사범대 학의 제일기 최우등생들이 강진태, 박
 예브도끼야 디리드롭나, 선생과 박니콜라이 화학선생
 에게서 글을 배울수있는 명예를 가지었다. 그러나
 그후 강진태 선생은 기계제비 손에 잡혀 유형지에서 세
 상 떠났다. 나는 이글수 없는 우리 하바롭스크 고중에 2
 번이나 강제 어주 이족에 찾아가보았던바 현재그형사는
 하바롭스크시 젊은이들의 체육전문학교로 리용되고있다
 나의 정답은 동창생들과 한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던 그 광범
 하고 아담진 강실들에게 행복하였던 한때를 가슴앞을
 정도로 회상하며 보기도 하였다. 왜 시간은 계속 앞으로만 가는
 지 나는 때때로 원망하였다.

7
나는 집에 돌아와서 금일 노숙에 "기 간츠" 명화극장에서 소집되었던 회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 한다는 하바를쓰크 시내에 살고 있는 한 언들은 9월 23일 까지 전부 여기서 떠나서 중앙아시아로 가야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언더는 벌써 12시경에 내무원 2명과 군인위원회 대표 4명이 이동거뜰에 살고있는 한 언들을 불러놓고 무슨 명령서를 읽어서 지금 각 조선인 집들에는 난 당판이 없어났다고 하면서 특히 저녁을 먹고 3촌집에도 가보고 해탈이 아르비넬네 집에 가바야된다고 하였다. 나는 저녁을 얼큰 먹고 얼지 않은 끈에 살고있는 삼촌집과 김희환이네 집에 가니 거기서도 벌써 내무원들이 와서 알려주었다고 하면서 짐들을 꾸릴 준비들을 하고 있었다. 나는 집에 돌아와 부모들과 내일 할 일들에 대하여 상논하였던바 우선 아버지는 직장에 가서 회적주속을 한다는 전가족에 대한 이주 장악금을 하고 집에서 짐을 꾸려야 하였다. 그중 삼촌반 학생들은 교관선생의 지시에 따라 아침 상학시간까지 학교에 집합하게 되었다. 나는 아침에 출가밤 없이 8시 정각에 학교마당에 도착하니 전체 학생들은 전부 마당에서 야단 백석하곤 누구도 강당에 들어가지 않았다. 벌써 언변반 학생들은 한일도 학교에 오지 않았고, 학생들 속에는 교무주임 무선생이 서고있다가 교관반 학생들이 거미다 집합된것을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다 어둡하여 가게 되니 교재와 직관물들을 가지고 가야 되기때문에 이것들을 꾸려(☉)야 되겠다고 하시고 직접 분류하여: 누구누구는 도서실에 가고, 다음 누구들은 물리 실험실, 화학 실험실, 교정실 등으로 말하시고, 다음 십여명은 이름을 부른 다음 교원들의 주책들이 있는 세로노바 거리로 가서 교원들 가정을 도와주어야 되겠다고 하시고, 교무주임 선생은 지난밤에 무리의 남자선생들은 전부라 체포

하여 개개 베에서 내려갔다고 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슬픈게 목노아 울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울었다
우리 십여명 학생들은 교육특임 선생을 따라 세로노바 거리
[한인 하바롭스크 고등 낮은 청사. 이 낮은 교사를 꾸려서 전북
교원들의 사택으로 변경식 했음] 교원들의 사택에 도착하니
집들은 전부 뒤집혀지고, 헝크러리고 사람들은 울고 있고 북분적으로,
노인층은 심장마비로 언하여 자리에 눕어 앓고 있었다. 구급차
출항대가 모기는 하였으나 사람들의 우름소리는 계속되었다.

여권이 바르 기간트 영화극장에서 회의가 없으니 다음 개개 베
일꾼들이 이 교원사택들에 와서 장밤을 가해 수색을 하고 살인
사티 집 책장들을 번저 버려놓고 주인들은 몽땅 체포하여 갔던
모양이었다. 나는 우선 내가 제일 존경하는 김도운 (김일) 선
생의 사택에 들어갔다. 그집에는 아들 형제와 딸 형제 사모님과
그이의 어머니가 계셨다. 아이들중 제일 큰 딸 딸 웨라가 13세
였고 그 아래로 열살, 여덟살, 다섯살 세살이었다. 김일선생은
그 당시 50세 가량이 되고, 사모님은 40세가량이 되며, 장모는
60세가량이 되었다 이런 형편에 김일선생이 체포되고 보니
사모님은 심장마비증에 걸려 눕었다. 이러한 형편에서도 내일
모레는 전부다 터나야만 되었다. 그런데 누가 집을 꾸리고 누가
시 민원위원회에 가서 이주명들에게 주는 장악금을 타와야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집안에 있는 짐작들도, 책장도 가정도 전부다
뒤집어 놓아서 형방 절차를 찾을수가 없었다. 나는 우리와
같이간 학생 한명을 데려다 사모님과 할아버지가 가르치는대로
집을 꾸리게하고 큰 딸 웨라는 어머니의 공인증까지와 나와 함께
시 민원위원회에 가서 장악금을 할것을 약속하였다. 이우란에
살고있던 선생님들의 형편은 거이나 다 한가지였다. 다만 그화
이는 늙은 할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없었음을 뻔하였다.

9.
김일 수탁 선생은 고종에서 인기있는 선생이었다. 선생은 수탁을
더구나 잘하여서 1935년 여름 하바롭스크 수탁 선생 콘쿨에서
일등 상을 장취하고 원동 변경 대회를 걸쳐 모코바 전국
대회까지 참가하여 높은 국가 표창까지 받았었다. 선생은
배와주는 파복에서 단 모범적인 것이 아니라 의복 차림과 걸음
거리 지어는 파복 설(병)시 말씀하시는 말투까지 모범적이었으
며, 언제든지 입에서 던져진 단어를 반복하는 법이 없었다.
참 천재적 인물이었다. 그러나 악독한 스탈린 독재 기계에
의하여 희생당하였다. 선생의 가정은 어쭙히 다뉴펜스에 와
계셨는바, 사모님도 할머니도 도라가시고 인제는 2년전에 뭐라
도 사망하고 다음 그 아래 아이들과 송군들이 살아가고 있다.

조국이 남아있고 교양교육하여 천재적 인물로 말하든 선생
들을 스탈린의 독재주의 무법천지에 의하여 처단 당한 다음
하바롭스크 고종은 기본 세대주를 잃은 고아처럼 12명(11명의 녀
교원들과 같이 유령지 카사흐 공화국 앞쪽 빈스크에 도착하였다.
주 소재지 악꾸빈스크에서 160 킬로 예타 떨어진 국영 북쪽 경리
야르부하메드란 명칭 부게트사이란 촌락에 학교를 열고, 교원
들은 그 부족한 수시자를 러시아인, 카사흐인 새로 대학들을 나온
고려인 교원들로 보충하고 일개월전까지 즉 9월 20일까지
조선말로 공부하던 고종이 11월 초순부터는 러시아어로 공부하
게 되었다. 이렇게 되고보니 부분적으로 남은 어린 교원들과 중전
불어 공부하던 학생들은 언어가 바뀌어지서 큰 고생을 하였다. 그대
신 러시아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우리와 같이 이국당한 학생들은
불행중 다행이었다. 부분적 교원들 - 강진해 선생, 허벌트르 등
선생과 강제 이국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많은 기술자
인헤리들을 기계에는 체포하여 갔다.

이곳의 유일한 흥행수단은 자동차였으나 겨울에 눈보라가
 터지면 자동차길에 눈산이 가로막혀 흥행이 불가능하기에
 그때에는 파리에 말이나 소를 이용하거나 그렇지 아니면
 약대를 레워가지고 짐들을 운반하였다. 이곳은 우랄강 상류
 북편사이란 강이 하나 있어 그강역에 적은 버들나뭇들이 섞여
 반사막 지대인고로 비가 전혀 오지 않아 평지에는 나뭇
 대 볼수없는 반경상과 벌판이었다. 겨울에 적산되었던
 눈이 녹아내리는 동안 땅에 흙기를 주어 그 벌판에 풀이 무성
 하여 목축을 키워 목축산업이 주민들의 기본 직업이다. 봄에
 무성하였던 풀들도 6월이 되면 전부 말라 버리는바 5월전까
 지 그 풀들을 베어 마초로 저장하고, 그가축들이 눈 땅을 밟아서
 각려놓았다가 화목으로 이용한다. 이곳 유목민들을 가축우리를
 몰고 풀이 좋은 목장을 따라 이동하여 가면서 살기 때문에
 약대 등에 집을 만드는 천막과 가정물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실고
 다니면서 전출락이 떠다니면서 사는바 봄에는 북으로 이동
 하면서 살고, 겨울에는 남으로 이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늦은
 가을에는 자기가 볼래 살던 출락에 오게 된다.
 이곳 기본 민들의 식량은 절반이 육부치고, 절반은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고기탕에 끼린 떡죽이다. 물고기는 전혀 먹지 않
 거나 그렇지 아니면 극히 드물게 맛이나 보는격이다 채소도 아
 주 적게 먹으며, 감자는 먹으나 그도 드물게 먹는다. 이곳 풍속은
 손님들을 아주 친절하고 후하게 접대한다. 기본 주민들의 안성은
 아주 유하고 너그럽다.

나의 부모들은 강제이주 그 이듬해 봄에 하뉴켄츠에 어루
 하여 왔던바 그것은 악쿠빈스크에서는 농사조건이 기본
 적으로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부모들이 떠났으나 학교와 같이
 도착한곳에 떨어져 있었으면서 1939년에 고증을 마쳤다고

그해 부모들을 따라 하슈켄스주 중실치 구역 물로 드브
 명칭 협동조합에 갔다. 하슈켄스 국립 종합대학에서 공부
 하러 하였으나 하슈켄스 시내에는 한인-여류면 들은 받지 않았
 기 때 문에 협동조합에서 부모들과 같이 벼농사를 하였다.

1940년에 하슈켄스 대학들에서 한인 학생들로 받아들
 았기 때 문에 나는 중앙아시아 국립 종합 대학 러시아 학부에서 법
 학 시험을 보러 입학하였다. 일학년은 잘 하자 독소전쟁이
 시작 되었다. 전쟁 포고가 내리자 각 반 학생 수자는 절반 이상
 줄어 들었다. 남자 학생들은 전부 전선으로 나가는 판인데 한인
 남 학생들은 동원하지 않았다 나는 시군사동원부에 가서 전선에
 보내달라고 하니 상부리시에 의하여 고역인들은 공병하지 않기로
 되었다고 하였다. 이렇 저렇 하면 일학년 진급 시험은 보러스나
 강실에 가던 여학생이 구활어상이고 그 남어리는 고역인들과 불국
 자들 변이에서 여성들이나 교원들을 보기 부끄러웠다. 교원들 중에서도
 55세 미만 되는 남자들은 전선으로 나갔다. 부분적 여학생들도
 자원병으로 전선에 나갔다. 가을이 되어 다시 공부하러 학교에
 왔으나 약 주일간 공부하고 전체 학생들을 농촌 합동경리 전야에
 내 보내며 목화 뜻기를 하게 하였다. 전야 밤머리에 "모든것은
 전선을 위하여, 모든것은 승리를 위하여" 라고 쓴 표어와 "목화는 화
 약을 만들 때, 군인들의 의복을 짓는 전탈품이다. 모든 다 승리를
 위하여" 라는 등 표어들이 걸려 있었다. 전부가 전선에 동원
 되고 보니 무겁은 일을 할수있는 여군은 다만 한인 대학생
 들이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뽐내 다니며 가장 무겁고 힘든
 일들을 하면서도 군중들 앞에서는 항상 조연스럽었다. 약 달
 반동안 목화축에 동원되었던 학생들은 전부 대학에 돌아와
 강의를 듣게 되었으나, 그것도 늦어지면 강의를 듣고 오지 못하는

영전에 나가 서북전선(지역에서) 지역에서 ¹⁹⁴⁹준격히 소개하여
모든 공장 기계 시설품들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이 작업에는 교원들도 동원되었다 하차작업이 돌리고 준격히 차
량들을 내어 다시 전선으로 보내야 할 때에는 우리 하차작업이
그 어는날 어침 4시, 5시 까지 계속되고, 9시에는 누강
하러 가야 하였다. 우크라이나와 백로시아가 파노준대에 전
령 당하자 이른 대학들의 유명한 학사, 박사 아카데미코들이
전부다 타슈켄트에 몰려 들어되었다 나는 그전까지는 교과서 풀
제에서만 쓴 이름만 있어 볼수 없었던 유명한 력사학 박사
고쓰민쓰끼, 조도노부, 하이툰, 바실레워치 등 박사들을 직접
만나보게 되었으며 그들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서쪽에서 열려
온 파노련 박사들중 어떤분들은 시내에 사택이 없는관계로 우중
일간식 영전대기실에서 자기가 밤을베개 삼아 베고 자고서도 아
침이면 대항에 출근하곤하였다.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는 동안 수
차 기계제베에서 나를 불러갔다. 말하건대 정희만전부 제5호
실에 도착하면 나보고-"조선에 일하러 가야 된다고"하였다 그리
면 나는 대답하기를-"일제 현명들이 그렇게 심하게 검열
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조선으로 정찰병으로 갈수 있겠는가?"
하면서 수차 거절하면서 서북전선에 보내달라고 빌었다 그 결
과 나는 안가고 나의 동창생 신봉남, 김예필 등 4명이
타슈켄트 여러 대학들에서 떠나 모스크바에 가서 2년동안
정찰기관 학교를 필하고 북한에 도착하였었다. 이들은 1944
년 초에 전부다 개별적으로 도착하였기 때문에 그 행방들로는
알수없었다. 그러나 반정함당이 아주 비밀하게 조직된 선
내에서 정찰해동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 어나를
총 4명이 다 체포되어, 평양감옥에 8명, 청진감옥에
김예필을 따로 갈두고 8.15 광복절을 맞아라고 일제는 후방하였다.

평양 감옥에 투옥되었던 신불남 이하 9명은 8.15 직전
 에 전부다 사형하고, 해방후 감옥내 심문 물건들에 의하면
 신불남이든 평양 옥산 사이 흥행중 기차에서 체포되었던바, 1945
 년 8월 2일에 6명이 일시에 고살되었다는 것이 증명되
 었으며, 다음 1년이 지난 1946년에 청진감옥의 재포에
 의하²년¹김¹예¹필¹이¹서¹일¹먼저 체포되면서 모스크바 추방시 누구
 -누구 어떤 사람들이 공부하였다는 것을 알해줄 것이 알려지
 게되었다. 때문에 김예필은 일제가 사형하지 않고 목숨
 을 살려 앞으로 계속 리용할 목적으로 그를 청진감옥에
 잡아 넣고 해방을 맞이하였다. 이 내막을 모르고 소련
 군대는 청진을 해방함과 함께 흥행노 물로 열게 되어 그
 안에서 소련 말을 잘하는 최수한병이 ~~있으나~~ 그를 흥행원으로
 위대하게 리용하였다. 그후 모든 역사가 해방되자 김예필
 은 소련 가서 김예필이 체포되어 모스크바에 투옥된^후 1947
 년에 군사재판 판결에 의하여, 당시 소련 형법에 사형법이
 없었기 때문에 최고형 20년을 받고 시비리야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사형하였다.

나는 1942년에 겨우 대학 2년을 마갑하자 군대복무에
 가지아니한 남자 대학생들은 불주자들을 제외한다든 전부
 동력 발전에 군사동원부 1명령에 의하여 파견되었다
 이 당시 현역 청년들은 대부분이 서북전선, 북부전선
 부근으로 새로운 철로 시설과 철교 시설에 동원되었다. 우리
 대학에서 동원된 학생들은 우르베코한에 부속되는 동력 보충을
 위하여 우력발전소 건설과 한광들에 파견되었다. 나는 칠직
 강 우력발전소 건설에 동원되어 2년간 일하고 1944년에는
 제대되어 부모들이 계신 현등조협에 들어가 현등조협의 문화부장

결 인민학교 교원 일을 하면서 대학에는 통신학부에 14
수속하여 하키면 검정시험 수험생 법으로 진급시험은 주기로 하
였다. 이방법으로 3학년 진급시험을 주고 1945년에는 대학
에 다시가서 정식으로 공부를 시작하였을시 군사동원부에서
호출장이 내렸다. 이번에는 조선에 가되, 정찰 의무 수행이
악이라 조선에 가서 25군단 소속으로 군대 복무였다. 나는 25군
연감 나의 고향땅에 도착하여 25군단에 속한다음 소련군
대기 병사 해방하여 높은 북한 땅땅에 도착하여 군단
정치부에 속하여 홍역원으로 있다가 1946년 1월에 황해도
신천 소련사령부에서 홍역원을 하면서, 소련 25군단 미전사
령부의 지시에 따라 호적개혁, 산업극대화 정책등을 군연인
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그후 전근되어 평양에 올라가
내각 중앙지도 간부학교에가서 정리부교장 겸 교원으로 1949
년까지 있다가 1950년 6.25 사건과 관련하여 인민군대에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정치부 지도원으로 대전까지 나갔
다가 다음 1950년 8월 1일 불어 인천 해안방어 여단
정치부장의 직위에서 복무하였다. 이시기에 인민군대에 한하여서
사상 결판의 시기였다. 인민군의 남진은 남동강계선에서 완전
히 좌절되고 보충병은 전혀 없는 형편에서 북한에 상륙한 유엔군
은 남동강 계선에서 완강한 방어를 하였던바 그들은 북해공군 3
개 비행종의 긴밀한 협동적 군사 전략 전술적 공작으로 인민군대 부
력과 공화국 경제력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고 있었다. 이런 형편
에 처한다음 김일성 최고사령관은 가장 혹독한 명령을 각 군
부대에 하달하였던바 그 내용은, 조선인 민군은 전투일부 수행에서
상관이나 상부의 명령을 조국의 명령으로 인정하고 일부도 회각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상부명령을 실행하지 못하였거나, 자기 마음대로
회각하였시에는, 상관은 그 즉시에서 총살하여야 한다. 이 명령대로

15.
한다면 남한에 침범한 인민군은 전부 총살받아야 하였다. 1년
령은 실천할수없이 혹독하였다. 인민군내 정치일꾼들은 그 명령의
실천을 위하여 엄격한 당정치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였다. 인민군
각부대 구분대 들에서는 하부말단 분대에 비르기 까지 당-인정회
들을 열고 결의문을 채택한후 그 결의문 아래글에: "내가 이 엄숙
한 결의문을 위반하였다치 나는 조국의 엄벌을받겠다"-라고 쓴
글귀 아래에 서명들을 하였다. 전후원들은, 특별히 해안 방어전후
원들은 바다로 불어 드리키는 적을 많지 않고 후퇴할시 자기 지
휘관의 총에 맞아 죽게 되었다. 이런 형편에서 유엔군은 인천
상륙을 계획하고 함대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상륙에서 나날
오는 사람들은 벌써 8월 말일까지 불어 날은 많이라고 있었으나
보통 병이나 보충 전후기재는 전혀 도착하지 않았다. 벌써
9월 초순부터는 매일 상공에서는 수백대의 비행기가 돌고 있었
으며, 바다에서 수백척의 크고 작은 군함들과 어뢰정들이 바다를
파고 달고 있었다. 이때 인천 여단 군사 전투력이란 포병 2개
대대 뿐이었는데 한개 대대는 율리도에 배치하고, 한개 대대
는 인천 중도 보색들에 배치한다음, 한개의 경비 중대를 해안
연선에 배치한 외 한개의 흥남중대 약 200명의 처역 통신
수들이 있고, 다른 함모부 상원 김창희 참모장을 위수로 하여
15명 가량의, 정치부 상원 연락 병동까지 합하여 약 10여명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에게는 탄약 한대도 없었다
보조적 전후기재라하면 화물차 2대와 지프 승용차 한대가
있었을 뿐이었다. 유엔군 상륙을 하루일을 앞두고 여단장 리형봉소
장은 약 2개 대대 병력을 인출하고 군산 방향으로 해안 방
어 배치를 위하여 떠난다고 하면서 떠난후 영영 전후 소식
이 되었더라. 유엔군의 전반적 후퇴 이후에도 그와, 그가 인
출한 전후원에 대하여서는 전무소식이 되고 말았다. 정확한 소식은

오르나, 유엔군 정보를 철회한 일부관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여승승 노장은 군산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표중에서 유엔군에게 포위되어 전사하였다고 하였다.

우리 인천여단은 이상의 명령을 가지고서도 최고 사령관의 명령에 의하여 자기의 목숨으로 인천을 방어하려고 하였다. 벌써 9월 10일부터 상륙작전을 앞세운 예비력 공격은 시작되었던바 연 5일간, 밤낮 공격으로 항공포격, 바다로부터 한 톨 사격이 계속된 결과 월리도의 표면 면적은 100프로로 포탄과 폭탄의 폭격으로 인하여 땅이 1테라 길이로 완전히 뒤 번져지게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픔다운 휴양소라도 만들수 있던 그 월리도, 순전히 각종 과실 나무로서 엉켜진 늪전한 인공적 공원, 그 아담스럽게 드리웠던 돈드눔이들, 그 아픔다운 별장들은 유엔군의 5일간 함포, 항공사격에 의하여 완전한 사하라 사막처럼 바뀐 바뀐 별관이 되어 버리고, 우리 포대대도 그 흙길에 전후원들과 함께 영원히 매장되어 버리고 말았다.

나는 뒷산에 위치한 전후지휘소에서 전에는 예상도 할수없는 광경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눈썹처럼 내려다만 보았다. 이것이 바로 1950년 9월 15일 아침 7시가량이니 되었는데, 유엔군의 상륙은 우리전후원들의 저항이 완전히 꺾일다짐에 시작되었다. 북분점으로 간혹하여 있던 전후원이 몇곳에서 자동총사격을 하였으나 그것은 달구알로 바위를 때리는 격이었다.

나는 큰 유엔군 함선들이 바다가에 접하여 뒷물을 자작열 변 거기로 불어 대크들이 저절로 나오며, 전후원들을 실은 적은 배들도 바다라에 전근하듯것을 내려다 보면서 지휘소에 남은 기관들과 연락병 선명질이와 함께 뒷산을 넘어 후회 할것을 계획하고 아태에 지시를 주었다 나는 어랑시 여관장 대리로 있었다. 전종일 산기늘, 신장르 연변 오솔길 들해서

도부로 김포 비행장까지 도착하니 지역편이였다 나는 작전
 파장에게 지시하여 환문장은 속히 서울로 호송제 하고 인천여단
 에서 살아남은 총 인원수를 헤쳐보라고 하니 그는 말하기를 총인
 원 26명이라고 하였다. 우리들은 밤으로 계속 행군하여 서울방
 향으로 가는 동안 몇번 폭우고개를 겪었다. 유엔군은 인천에 상륙
 한후 선전 기동 기제화부대는 대홍로로 우리를 유회하여 앞으로
 쫓아나면서 김포비행장과 서울사이 높은 고지들을 다 점령하고
 그곳에 기관포와 기관총을 걸고 지나라는 미인군대들을 사격
 하였다. 때문에 우리들은 대홍로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와 떨어
 지 있는 오솔길과 관목어선 늪풀이나 곡식밭을 밟으면서 서울로
 행하여 갔다. 한곳에서는 산고지에서 큰길에 나타나는 독포물
 에 대하여 계속 기동소식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공밭에 기어들었다. 그
 러나 고지에서 내려다 보면 공밭에서 기는 사람들로 확인하면
 서 계속 공밭에 대고 기동소식을 하였다. 내 생각에는 우리들
 은 이 공밭에서 다 죽었다고 생각하였다. 다른 곳으로 도망치
 려고 돌아갈은 없었다. 우리들은 이 공밭에서 5명이란 전후
 원을 얻었는데 그중에는 나의 직접부하 정희부부장이 전사
 하였다. 나는 앞에서 가고 내 뒤에 연락병 신병철 중사가 가고
 다음 중좌 정희부부장이 기다라 전사하였다. 사람이란
 총에 맞고 이어 죽는 법이 없고 꼭 얼마간 신음하러 죽는 법이다
 나는 신병철어와 같이 그의 신음소리가 끝날 때까지 그를 떠
 리고 기여 갈수가 없어서 죽은사람 처럼 공밭에 가만히
 누어 있다가 연락병을 시켜서 나의 손수건을 그의 뺨에다
 덮어주고 다시키어서 그 공밭을 지났다. 내 손에서 손수
 건을 받으면서 연락병은 나에게 물기를 부부장 등지 손목에는
 미국제 손목시계 새것이 있는데 그것을 꺼내려는가 하였다.

나는 옥면소리로 레지달라고 호령을 치고서도, 다음 공면하
 그렇게하였다고 참회하였다. 우리가 일하는 전후원중에는 홍신중대
 홍신수 3명과 다른 전사 한명이였다. 참문장 김창희는 벌써
 15 일에 부상 당하고 후송되였기 때 문에 남아서 인원은 나
 의 지도 하에 작전과장이 인출하였다. 우리가 서울에 도착하
 였을 때는 17 일 오후였다 작전과장은 서울 전선사령부에서
 400 명의 보충인원을 받아가지고 행군하여 의정부 동쪽현을
 지나 연천서쪽으로 압록강을 건너 황해도 장흥군에 가게
 되었다. 우리들의 전후의무는 여기에서 10일간 전후훈련을
 한 다음 무기를 접수하고 다시나가 연천을 탈퇴할 의무였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도착하자 5 일만에 서울이 떨어졌다.
 나는 여기에서 해군사령관 한일우의 부전 명령을 받고 칠
 백명 전후원들로 2개 대대를 조직하여가지고 평북 문산,
 대유동을 걸쳐서 신의주에 도착하였다 여태는 벌써 서울뿐만
 아니라 평양도 떨어졌을 때였다. 나는 신의주에서 부대를
 인출하여가지고 압록강을 건너 안동시에서 전후원들을 기차
 를 태워 작전과장 인출하에 중국을 들어 다시 만포에 40
 포류 지시를 주고 나 자신은 자동차를 타고 계속 조선 땅
 으로 압록강을 따라 만포에 도착하였다. 이때는 벌써 10월
 말 중국 인민해방군이 '항 리 원조' 표어를 들고 조선에
 들어섰을 때였다. 이들을 가르쳐 중국 인민 지원군이라고 하였다.
 나는 만포에 도착하여 최고 사령관의 명령으로 연천 여단
 전후원들로 해안방어 26 남포 여단장 강병학 대좌동
 지에게 인계하여 주고 나 자신은 중국 동만주 한인 민족 자치
 현 연길시에 도착하여, 보병 32사 정치부장으로 가야 하였다.
 나는 최고 사령관의 명령대로 어지방에 도착하여 사단의 동기

1) 훈련을 끝마치고 2월에 다시 사단과 같이 동북전선 철원 계선 제2 집단군 최현 중장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여기에서 전투에 한 번도 진입하여 보지 못하고 다시 최근 사령관의 명령으로 동쪽 남한쪽 동풍에 새로 조직된 조선인민군 항공 제1 방사기 사단 정치부장으로 가게 되었다. 비행기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제1차 진공에서 완전한 실패를 당한 조선인민군은 새로운 항공부대들을 조직하여 가지고 다시 남한에 진공하여 보려고 꿈 꾸었던 것이다.

1. 동쪽 상잔과 군인들의 가정.

나는 조선 상잔에 참가한 다음 자기 영호내에 같은 민족들의 상잔이란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비헤저리게 느꼈다. 나의 다 성장한 아이들을 불러다다 앞방에 일찍이 조라가신 부인을 생각할 때 마다 마적도 가슴 아프게 회고 하고 있다.

내가 일하던 내각 지도관부학교는 평양에서 경치가 좋은 사동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부락은 대동강변 절벽 바위우에 "김강전" 이서 있는 돌밭 공원 아래에 촛촛하게 들어앉은 부락일 한편에 역시 작은 돌밭 공원을 끼고 앉았었다. 바로 이 작은 돌밭 기슭에 사동관부학교가 있었고 또 절에 평양유악대 돌이 있었 고 그 앞으로 고지에 접근하면서 몇개의 방공호가 있었었다. 이 방공호들은 일제가 안락을 위하여 석조로 잘 건설한 것이었다. 6.25 전쟁이 시작된 후 평양 감옥도 포격을 당하였다. 북한 내무성 각 행정소 지도관은 죄인들을 하는수없이 농촌들에 분산 시키는 한편 그야 말로 특별 죄인들은 여상과 같은 방공호들에 배치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북한에 입성하기 전날 일부 특별 죄인들은 다시 평양 중앙 행정소에 문동하여 흥살하고 이 방공에 남아 있던 전체 죄인들은 그 방공호를 돌파하여 전부다 죽게 하였다. 그 후 평양에 유엔군이 입성할 다음에 남한의 최만대원들과 지방인민들의 협조

2. 예의하여 반공호 내에서 사망된 죄수들을 파내어, 내각간부학교
 당당에 책포를 꿰놓은 위에 모두다 나란히 눕혀 놓았다.
 다음 사동간부 학교교원과 노동당원, 인민군 북부자 가족들의
 식구들을 억지로 불러다가 그 죽은 죄인들을 시켜내게 하였으며,
 부분적 시체 푸인들은 인민군 가족들로 하여금 그 시체들을 다른
 기구를 이용없이 없어 슬눈으로 소제하게하였다. 그러면서 그
 소제원들을 구타하고 멸시하였다. 그 소제원들 중에는 연노화산 형
 타버리 할터니도 있어서 인민군 군인들의 굶도 복인도 없었다. 그러나
 사회가 잘못되어 두계급으로 분류된 사람의 우리들은 열사만았던
 자들은 부러운 자기의 이전 명예를 회복하는듯이 다른 우리에 다시 또
 열사를 주는 그런 인간으로서 저러히 용서할수없는 갖어박행등까지
 하였다.

4대가정은 당시 부인 채판남 29세, 딸 3 형제, 그중 장녀
 딸바-8세, 2녀-3세, 3녀-1세였다 부인은 1948년에 평양
 에 도착한후 평양 시내, 김대중에서 노어선생로 하다가 1949년
 부인은 사동간부학교에서 노어선생노릇을 하였다. 내가 전선에 나가 라
 시될 중후에 사동간부학교 교원부은 4대가정을 화물차에 실어
 피난 식히노라고 청청강 이남 개천시를 쫓 밀어서 어느 농락
 에 갔다가 북리외농고, 어떤 농촌 농가집 주인께 허가를 받고 할
 타 동안 있기로하였다. 그러던 10월 20 일에는 평양이 췌러
 리고 춘천, 숙천에 유엔군 특이들이 들어왔다고 주인은 우리
 가정은 가라고 지기였다. 숙천에 벌써 낙하산부대가 내렸는데
 내일에는 여논에 들어 온다고 하였다. 판남은 허는수없이 세아이를
 데리고 길가에 나갔다. 유숙하던 집에서 길가까지 약 500메
 타 되는 거리를 한살자리를 업고, 세살 자리 또시는 이끌고
 또마는 걸으면서 땀을 흘리며 길까지 겨우 4모나 누백명
 사람들을 악의들을 업고 이끌고 하면서 모두 북쪽으로, 개천쪽

3.

으로 빨리걸어가는 것이었다. 개월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도 하지만 세아이를 데리고 걸어가려던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제일 큰 문제는 세살짜리 두아이를 데리고 걸으면 얼마나 걸을 것인가? 다니는 길 옆 적인만한 나무그늘 밑에 앉아서 기다려 주었지 떠날 수가 없었다. 어떤 피난민 녀자가 말하기를 이 아이 하나를 내 팔리고 세살짜리 아이가 살아야 되리만은 가? 하면서, 아나지름 하지게 할 때 남한에 드양 갔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치안대를 조직하고 간부 가족이 아닌 군대가족은 몸뚱이 학살한다고 하니, 또 싸를 가르치며 저 풀밭에 내 팔리라고 하였다. 다니는 그 말을 듣고 또 시골 그자리에 떨어뜨리고 생각하면서 일어 서려고 하니 세살짜리 아이는 벌써 아래치고 치미끄러지를 꼭 붙잡고서 다마하고 더 고맙고 친근한 것이었다. 다니는 주저앉으며 생각하기를 참말 인간도덕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자식을 풀밭에 던지고 간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아어와 어머니는 알아 들었다. 김일성은 이런 동족 상잔을 야기 시켜 놓고 남한 정권에 실패 당하고 속히 하게 되자 평양 형무소의 정치범들-조남성 이하 반으로 다 놓살하고 자기가족은 승용차에 실고 되날가리 안양인가? 아나 그분인가? 김일성 이하 각급 로당 기관, 각성 기관 간부들은 몸뚱이 풍족에 되날가리 안양인가? 그러면 되날가리 못한 수백만 평민군 가족 보충 로당당원, 각급 하급 당원 간부들의 가정 형편으로 생각하여 보았는가? 평양 형무소에서 죽은 사들 간부들의 방공호에서 죽은 각급에 배치하였던 최인문 누구나 다 사형하였던 그들에게는 자식들이 없고 친척들이 있지 않은가? 이들은 로당 당국원의 실패 때문이 속히 하지

이번을 가족이나 로동당원 또는 아래 간부들의 가족에 대하여
 자기들이 겪었던 고통을 복수하려 하였던 것이다. 로동당 간부들이
 어쩌나 쉽게 나왔는지 후회 시기에 후방에서 조직된 치안
 대는 로동당원이면 모조리 죽어왔다. 어떤 로동당원들은 로동
 당공판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 당공를 주머니에 넣어두고
 단 나쁜 것을 믿을 적 할공에 감추어 놓은 가다가 치안대에게
 붙잡히면 자기는 로동당원이 아니라고 부정하면, 상의를 통
 땀 빼버린다고 하고, 어깨에 로동당공 주머니 끈자리가 있
 으면 (그 끈자리는 2-3 밀어간에 인차 없어지리 않았음)

그 족석에서 아무질분도 없이 때려 죽이곤 하였다. 이렇게 사람
 들 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놓고, 자발가
 나, 변천자나 하는 적대적 사상으로 표양하여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죽여도록 만들어 놓고 B.25를 시작하였으나 무고한 연인들이
 얼마나 피를 흘렸으며 눈물에 고생을 겪었으며 또 오늘날도 그
 리 열로 언하에 계속 눈물을 흘리^지 않든가? 그러면 북한은
 계속 무장 통일로 연원하지 않든가? 그러면, 가정 무장 통일
 이 된다고 하자. 그 무장 통일에 사람이 얼마나 죽어야 되겠는가?
 전쟁에서 죽어, 자발가들은 죽어야 되고, 이북에서 남한에 무남한 사람,
 반당분자, 친일파, 사대주의자 (큰나를 존경하는 사람) 지극들이 다
 죽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그러면 살사람은 북한 로동당원들이긴
 정일어를 업급처럼 모시고 할당알어 마는가?

그러나, 현시대 민족회가 날아치고 신사군이 변명하는 어시대
 에 어떤 아버가 그런레드를 좋아할 것인가?

때론에 사실 평화적 통일을 원한다면 한 민족을 두개 집단으로
 분류하는 법도 없고, 즉 계급적 분열을 최소화하고 전세계적 실패를
 당한 공산주의를 버리고 진실한 민족주의, 신사군 시대에 넘어가
 면서 인적 자원을 제일 첫자로 써세우는 제포리가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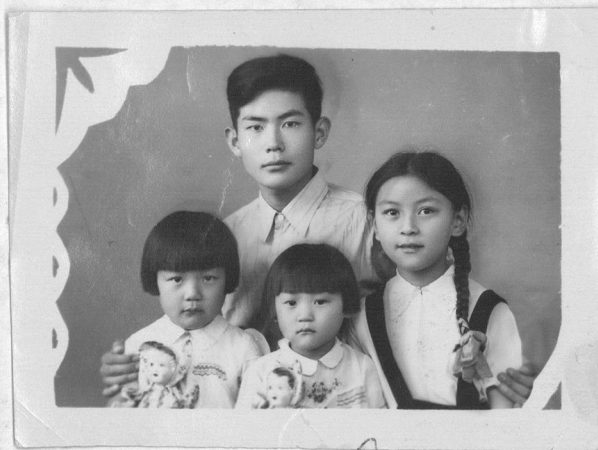
5.

이렇게 죽으라고 던지라고 해도 던질 수 없고, 물지 말라고 때
리네 어눌이 노려서 웃는것은, 그를 살라고 세상에 태어 놓고
삼년 동안 굶어야 목어야 재태우던 그 아이를 죽으라고 풀선
에 던진다네라 참안 자기 눈으로 죽일 수는 없어 눈물도 흘
면서 울며 바깥 환경에 직면한 줄 알고, 큰 딸 도나는
오빠 오빠 하고 나를 불렀다. 딸누는 계속 울고 앉아서 있으나 사
랑들은 계속 걸어 깎아서 북으로, 북으로 가고 있었다. 바깥 어딘
에 짐행이를 걸고 지니라던 어떤 전사 한명이 딸누에게 물기를
왜 앉아서 울리냐 하다가 하고 물으니, 딸누는 가자하니 아이
하나 때 묻혀 가지 못하곤 있다고 하니 그 전사는 도사를 데
려 가는 데서 어서 가라고 하였다. 이들은 약 1000 리나 정도
걸어가니 근대 전원화 한대가 풍를 거뒀다고 차외에 수십명의
부상병들을 실고 몰리 나길로 겨우-겨우 올라오는 것이었다 이때
도사를 안은 전사는 큰 길에 나서면서 높은 소리로, 차타리
이 매를 죽여고 너의 들은 가라고 하였다. 짐행이를 내 놓았었다
문전후는 문전하늘 하늘 뚫히고 큰 소리로 불렀다. 어떻게 하라
지야? 다 죽는 거야, 그렇지 아니면 부상 병이 나가게 할 거야?
전사는 대답하기를 이 매 들은 다 죽고 너의는 살아서 설한 단 말은 자?
하니 차외에 왔던 전사 한명이 내리면서, 내 대신 그 아이들 두 명을 실으
라 하니 또한 병이 내면서 전원화 포에 걸렸으니 시뻐치 아이도
실고 아크어부도 태워라고 하였다. 부상 병들은 전부 포다리, 포 대위여
매 달 리 가면서 아무 말도 없었다 그 외에 앉은 딸누는 거대한
물 리나 하천까지 갈 수 없었다. 여기까지 도착한 문전후는 여
기에서 휘발유를 더 얻으면 내릴 아쉽어 더 갈 수 없어도 그렇지
아니면 갈 수가 없다고 하였다. 딸누는 허는 듯 없이 아이들을 데리
고 저 멀리 산기슭에 보이는 초가집에 찾아가니 거기에서 소련에서

6.

갖어 나온 리슬백의 가족, 부인 류다를 만났던바 그녀는 별
 2 일전에 벌써 여기에 도착하였다고 하였다. 류다에게는 아이
 2명, 큰딸 스웨타 11살, 아들 블라와 8살 을 데리고 왔
 었었다. 류다는 댄나보다 큰 큰집은 없었다 그러나 종족으로
 남아 가지면 말포까지 가야 되는데 자종차다 없어서 문제
 였다. 댄나는 류다를 만났것이 큰 실책을 만난것보다 더 반갑
 았다. 류다는 댄나하고 할하리를, 일이나 인제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기로 같이 살자 하니 댄나에게는 큰 어서어 생긴
 것 같았고, 살길어 열린것 같기도 하였다. 류다에게는 훌쩍
 이가지고 다니던 권총이 있었지만, 류다는 그것을 보여면서
 어떤 유언권 혹은 허사 들 쫓 들어 오는것은 없이 없이 생
 죽일다고 하였다. 댄나는 그런 재간도 없었고 대담성도 없었다.
 그 몇일 후 댄나에 유언권이 상륙하였는데, 개천과 안주에
 적어 들어 왔기에 특히 안주로 이동 하여야 되었다. 밤으로 하천
 을 넘어 되기 때문에 높은 밤업이로 불구하고 큰 길에 나가 지나
 가는 차를 타고 가는수밖에는 없었다. 밤에 자는 양어 들을 깨워
 도마까지 세어주는 열여섯 여복을 업고 밖으로 나갔으나 또
 싸는 자는 깨워 앞 허백 뒤로 쓰러지고, 앞 허백 쓰러진 허백
 그러건 저러건, 댄나는 왜 작은 열라를 업고 자택으로
 도사를 이끌고 큰 길가에서 나갔다. 수많은 자종차들은 길
 을 끝까지 실려서로 그위에 사람들은 해운 것이 하나도
 없후에 허리 앉았다. 세월은 벌써 시월 말엽이라 날씨는
 완전히 맹자기 시작하였다. 물고 달고 있는 시간에 댄나 화물차
 한대가 멈춰 있었다. 댄나는 쾨위에 어떻게 하고 가겠는
 냐고 물으니 아크터니 두분은 어찌하면 해와만 죽면가
 가겠단고 하자 아이들 들어서 짐사에 안치 놓고 자탄어 들은

71. 집을 불타고 서서 강계 고개를 넘어 만포까지 눈을 얼구며
 칩어 떨어뜨려 아이들의 목숨이나 살구려고 왔다. 만포에 도착
 한후 만포다리로 그 건너편 도시 쪽 반역을 도착하니 중국
 여성들의 얇은 밤, 시락꽃을 그려 놓은 무늬 집치에 어서 복혀
 먹으라고 하였다. 먹기는 고사하고, 장땀을 짙잠한번 자지 못
 하고 떨어뜨려 온 류다와 단우는 어디서 변방에 들어와 자라
 고 하면 그것의 허한귀를 지렁어었다.



사선을 뜨고 살아 나온 딸 삼형제

또나, 또샤, 넬라, 양자 오점주.

능동화에 소중한 집을 다 견어설고 미안포에 도착한 김일성 아래 벼슬
 아치들은 쥘반역전에 들어세운 기차에 짐을 가득히 꾸어 싣고 기차를
 한지만 류다와 단우는 아이들을 기차에 싣지 못하니 짐이 전부
 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북만주 할빈시 까지 도착하는 연이
 일간 일점반역전에서 머리 상부에서 주물날 점심, 저녁을 먹으
 면서 여행객처럼 싣터가 할빈 역전에 도착하자 벌써 조직
 배강하여 높은 적고 큰 여관들에 배정 받게 되었다. 이레부터는
 죽을때까지 원형제처럼 맺어진 사랑의 형제 류다와
 단우는 한집에 한칸에서 살게 되었다. 당시 미춘백 소
 장은 제7 예비군단 군사위원으로서 아리 선내에 도착하지
 못하고 사포시 지역에 군단과 같이 있었다. 그 지역에서 동기

8. 전후 혼란을 끝냈다고 3월이야 조국의 땅 석왕사 삼림속에
 추둔하여 전선 예비로 있었다. 때문에 활빈에 도착한 류다는
 남편 리홍백이 있는 사령소를 얼마나든 내왕할수 없어
 피난한 가정들은 류다를 행복의 여지라고 하였다. 활빈에
 도착한 북한 간부들의 가정들은 일정한 강제근로 태인당 계산으
 로 국가로부터 받아 뽕뽕하게 살아갈수 없었고, 이 가족들
 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선정부 대표가 여기와서 가족과 같이
 있게 되었다. 여기와 있던 가족들은 1953년 5월 27일 정전
 협정이 비공식될때까지 여기에 계속있었다.



1950년, 6.25 상관 직권에 평양에서 찍은 사진인바
 당시 단우는 29세 (왼쪽) 류다는 31세 (바른쪽)였다
 정전이되자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남편들을 따라 단우는
 호항산 정치군관학교 소재지, 류다는 강원도 석왕사, 제
 7 예비군관 주둔지에 도착하였다. 1953년도 가을철이
 돌아오자 아이들의 공부문제로 인하여 군관 가족들은 전부다

한글에, 평양에 돌이게 되었다

단나가 보통산에 도착한후 평양에 나오기 직전에 우리 가정에는 큰 불행이 생기었다.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조인된후 최고 사령관 김일성은 8.15 해방 8주년 기념 행사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으로 인민군내 전후에 참가하였던 전체 군위사단 성원들과 각 전후들에서 명성을 떨친 부대들로 전부포함한 각 병종 군관학교 성원들을 백프로로 열병식에 참가시키기로 하였다. 나는 그 열병식 준비를 위하여 벌써 10 일전에 군관학교 학생이원여병을 기차에 싣고 평양에 도착하였다. 우리 부대는 홍천모부에서 정해준 동평양 비행장 부근에서 열병식 훈련을 하고 있었다. 8월 10일 저녁에 부대에서 홍천모부에 목전이 날아왔다. 홍천모부 당직군관은 전화를 걸어 우리 부대 작전부장께 전화를 걸어 장교장가정에 불상사가 생겼으니 꼭 즉시로 집에 돌아오도록 하시었다. 나는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경이 되였기에 200 킬로미터 거리를 가자면 5시간이 걸리겠으니, 저녁 9시 경에야 집에 들어설것을 계획하고 작전부장을 불러 내일의 일을 꾸민, 나는 작전부 부관을 데리고 헤어져났다. 자동차에 앉아가면서 집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났는지 몰라 속은 더 두렵다. 벌써 순천을 지나 개천에 들어가 직전 적으만한 개천 길에 들어섰을때에 우리 자동차 앞으로 큰 여호 한마리 새끼 두개를 데리고 길을 건너 가는것이였다. 나는 권총을 빼들고 그놈들을 쏘려고 생각하다가, 산 권총에게 나에게 해를 필요없는 해를 얹혀라고 생각하면서 그만두었으나, 그러지 않아도 불안하던 내 마음이 더 불안하게 되었던것이다. 그것은 이전에 나의 아버지가 알뜰한시기를 남자가 큰 길로 갈때에 여호나 뱀이 길을 건너가면 뒤끝에 꼭 쏘는 행을 만나게 되니 그것을 꼭 알아 두어야 하시었다. 나는 학생

101

각으로 자. 어쨌봐라, 그러지 않아도 집에 불상사가 생겼다고 하여 가고 있는 길에 또 어쨌은 무슨 불상사를 예고하는가? 그 정도 아니면 내가 아직 모르는가 하고 그 여호새끼들이 나에게 왜 알리는 판인가? 하는 생각도 하고, 여리가 바로 1950년 시절 추위시기에 댁나가 세아이들을 데리고 길가에 나가 앉아 울음을 돌려놓고 아낀가 하고 속마음 끌리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수 터러 차를 빨리 불러고 하였다. 어느날 개천을 잃는 지나 구장을 모른편으로 보면서 산골이를 한두번 도우 바로 농산 역에 도달 하여 모른편으로 돌러 묘향산 골재기를 구비-구비돌아 첫 차단보에 도착하니 많은 여가들었다 차단보를 지나 부대 참모부에 도착하니 당직 규관은 보고하는 것이었다. 그 보고 샷이막 끝에 대좌동지 딸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거기에서 부관과 같이 집으로 걸어가고 한편수는 자기들대에 흡식하라고 하였다. 집에 들어서니 십 일세 되는 큰딸의 시체를 큰방에 놓여 놓은 댁나와 옆에 집 규관 부인 1킬병이 앉아 있고 권의장이 나에게 지서한 보고를 하는 것이었다. 물레는 동리 아이들과 같이 리역간으러간 또마가 산골물의 비속을 모르고, 해연칠줄 모른데 있었다.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집에 달려와 어름다움 근처에 있는 군인들이 강가에 달려가니 아이는 벌써 깊은 물바닥에 가라앉았다. 아이를 짐지내어 놓고 인공 호흡을 식혀스나 물로 흔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였다. 어떻게 댁나와 우리들은 그 전쟁의 여해움에서 겨우겨우가지고 중국에까지 가서 내가 항공사단에서 복무할시 여터끝에 다리고 단 나리 고생익히다가 조국당에 들어가서 옛날하인인 키우고 공부씩 해^야할대신에 그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잃게 되었다. 산골물의 성격을 알려주지 못한 한시겠지. 이러고 보니, 물레는 그 죽트라던 단지던 아이가 큰아이가 되어 물레는 50여살이 가 갈아오며, 두 아이를 키워 싸우까지 산어 갔어고 하류 계층에서 잘 지내고 있다.

11.

나는 그 때를 볼 때면 전쟁시기 일을 생각하면서 후회감을 느낀다.
 나의 부인 단나는 1985년에 64세로 세상을 마감하였다. 사람이란
 되게 늙으면 위안이 생긴다고 말들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래서
 언지 단나는 위안으로 신음하다가 아직 아이들이 사는 것을 보지
 않을 낡은 남자에 눈을 감았다. 나는 단나가 죽든지 심련어 되나
 날이 갈수록 그의 자태, 그의 모습, 문성까지 날 날이
 귀에 들리니, 눈에 영상된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과 첫
 부부는 하나님 이 지어준 쌍이라 이르는데, 아마도 그래서 항상
 나의 맘과 같이 사는 모양이다.

인민군 제 1 방사기 항공사단

인민군 항공방사기 사단은 아직 북한 역사에서 그런 비행
 기가 없었다 그러나 이군은 벌써 낙동강 계선에서 불어 기본
 항공 전투기재로 리용하여 자기 전투원들의 공격을 적기를 불어
 없애는 데, 적의 공격을 능격하는 동시에, 적 진리와 그의 이동을
 20. 비리 기관포와 로켓 포로 포격 기동소사 하였다. 그러나 인
 민군대에는 우리 방사기 항공사단 1951년 8월에 전투에
 출전하기 전까지는 없었다.

이 항공 사단에는 2개 연대, 1개 연대에 전투기 30 대씩,
 60 대하고, 사단장, 부사단장 비행기들, 종합 62 대의 방사기,
 훈련용 방사기 2대 역시 미그-17 있었고, 외에 은 야크-18 들이
 몇대가 보충 연습기, 혹은 연락용으로 리용 되었다 이 외에 사
 단 편제로 보아 기술대대 1개가 있었지만 이 구별대는 전투
 비행기들을 기술적으로 정비하며, 탄약과 연료를 공급하며 사단
 전체 성원들의 침식을 보장하는 아주 중대한 전투원 집단이었다
 본래 소련 전투 편제에 의하면 이 기술대대는 각 비행장
 에 고정적으로 고착되었는 지상 근무원 집단이다. 만약 항공
 연대가 전투 행동 목적에 따라 다른 비행장으로 이동하였을시

그 비행기들이 도착한 비행장에 있는 기물 대대가 그들을 정비 현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원군대에는 어떤 대대가 하나 없어서 대대에 우리 대대는 훈련 목적으로 항공연대들이 이동함에 따라 남만주 동풍, 안산 북검 주변 양촌, 오동반도 여촌, 의주, 구성, 용성, 평양 등에 이동하였다. 이 기물 대대에는, 발동기 정비, 무장 정비, 동선중대, 경비노대, 운수중대, 공군중대 등 구분대로라 함게 나누어, 이발사, 세화원 양화수리공까지 있었다. 대대에 한번 이동하면 2번의 화물 열차가 필요하였다. 그것은 특별기차들로 정비된 화물 자동차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전후부대 편제에는 사단장 강대용, 부사단장 김희정, 제 1 연대장 채구성, 2 연대장 강정덕, 각 연대에는 3개 대대, 대 대대에는 3개 중대, 대 중대에는 미그-17형 비행기 3대씩 있었다. 처음에 전후에 진입할시에는 (1951년 8월) 미그-15형으로 전후에 참가하였다. 1대 비행기는 37 미리톤 1톤에 포함 40개, 와 23 미리 기관총과 총알 160 발, 총합 200 발의 화력이 가깝다. 이 외에 지상 근무원으로 참모장 이하 10여명의 근무자, 정치부장 이하에 8명의 근무자 있었다.

제 1 방사기 사단 비행사 60명은 전부 소련으로 유학갔던 유학생들이었다. 제 일차 공격 실패후 항공부대를 강화할 목적으로 김일성 사령관의 명령으로 소련 유학생들 삼할년 이상 학급으로 가장 전전한 학생들을 송환하여 새로 조직된 방사기 비행사단에 보내게 하였다. 비행사들을 선출한 시기에 준비하기 위하여 소련으로 보내 잘 준비된 기관들과 함께 소련 근무 항공 방사기 사단을 소련 삼중영웅 꼬제두브 사단장 대좌의 영솔 하에 파견하였다. 2월에 조직된 사단은 3개월 동안에 리론 상투들을 완료하고 5월에 북경부근 양촌에 이동하여 가서 소련 방사기 전후부대를 만나 낮이 되면 1대 비행기에 우리

비행사들은 올라간 앉아 소련 비행사는 비행기 각구로
 설명과 그리 기능과 작용 필요 따라 설명하고 저택이던 계속
 이론 상해를 진행한 결과 6월말에 비행훈련을 시작한 결과
 7월말에는 비행훈련을 끝냈고 8월에는 함안주 안산 비
 행장에 이동하였다. 이 곳에서 우리 사단은 소련으로 귀환하는
 소련 항공병사기 사단, 사단장 게레브니코브, 정치부장 폴
 로 두히에게서 전후기재들을 접하게 되었다. 이 곳에서 7월
 말에 전후기재 함께 연수 사업을 완료하고 항공사령부 왕런
 사령관, 리활 부사령관의 임명하에 소련사단과 동별연회를
 평강회 진행한 다음 우리 연대들은 하나씩 안동에 이동
 하여 나가 본격적으로 전후에 참가하게 되었다. 안동에서
 전후에 진입할시 소련 삼중영웅 게레두부 사단은 우리 전후
 부대를 전후제선에 호응하여 주고, 우리 비행기들에 대한 적
 의 침공을 막아 주었으며, 적의 위험한 우회공격에 대하여
 라지오로 우리 비행기들에 알려주곤 하였다. 이것이 우리 비행
 사들이 항공전에 진입된 순시기에 어렵게 하였다. 그 후 우리 비
 행사들은 한국인의 영리한 특성을 발휘하면서 무다한 적기
 들을 북한이 영공에서 추락시켰다. 제1연대장 테구성어는 공
 공전에서 8대 추락하여, 공화국 영웅이 되고, 강철덕어는 6대
 항공 1사는 전쟁 2년 사이에 총합 적기 21대 추락시켰
 는데 그중 12기는 8군 사령관 뎀 폴리호의 아들들 그의 아
 버지 생일날에 모범비행 전후에 나쁜것을 추락하고 포로 하였던
 것이다. 제1방사기 사단은 전후를 잘하여 최고사령관 김
 일성이 2회에 걸쳐 방문하였다. 항공 1사는 영예롭게
 공중전에서 위훈을 세웠지만 9월 4일 공중전에서 전사하였다.
 특히 추척처럼은 딸을 야기 하였던바 정전 1개월을 앞두고

1953년 6월 말일경에 전후비행모범 중대장 상위
 노급석이는 공중훈련중 리그-14행 을 하고 남한으로 날을
 하여 김포비행장에 착륙하였다. 그 당시에 나는 벌써
 3월전에 가서 김책 정희 사관 학교 교장으로 전근되
 었을 시였다. 나는 그 당시에 생각하기를 "참고늬이 그 학한늬
 이로구나, 조국에 변절하고 적에게 넘어가다니" 하면서 왜 나쁜
 천병이로구나, 그 사단을 쳐부기를 잘했지, 계속있었어 이런 철칙
 투형사리를 변치 못할것, 하였다.

그러나 지금와서 다시그때 실정을 분석하여 볼때 노급석 비행
 사는 변절자가 아니라 할수없는 환경에서 자기 삶의길을
 찾은 영웅적 걸음은 걸은 청년이었다. 얼마전에 박헌영이
 와 이흥업 등 여러 남노당 간부들이 검거된다음 자리의 가장
 친근하던 친구 이흥업의 아들도 같은 비행사로 있었으나 눈을
 흘리며 잡혀간다음, 노급석이는 한어떤 밤잠은 이루지 못하고
 어제 언제 나갈으며 오와하고 기다렸다. 왜 전 전쟁기간을
 목숨을 걸고 매일같이 싸운 노급석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은
 노급석의 부친은 함흥 흥남공장에서 모범적 기사를 일하시
 다가 자위대 성원으로 함흥 방어시 전사한다음 노급석
 의 어머니는 절벽 깎을 데되고 있던차 유엔군이 후퇴할
 시 그들이 구간후 함흥에 원자한을 전진하는 소문어
 퍼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남한으로 나가게 되었다. 노
 급석의 어머니도 본래 남한 출신이여서 그곳에 친척도 있
 고 하질래 남들을 팔아 남한에 나갔다. 노급석이는
 전쟁 3년간에 후처 집에다 편지를 보내었으나 회답
 은 한번도 못받다가 53년 정월애초 작기가 살던 리장
 에에서 오는 회답에 아버지는 전사하시군 어머니는 월남하

시였다고 하였다. 편지는 노근석의 가슴속에 굳어 틈강을 뚫지
 없다. 북한에 살던 노동당원의 가족이 적을 다 따라 남한에 갔다는
 것은 조국에 대한 변절론 언정 받을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어서
 나의 아들, 나는 그러면 꼭 철칙, 제대, 정치범 수용소 앞길은 아득
 하게 죽었의 길밖에 안 남아였다. 그러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
 기보다, 남한에 들어가 어쩌나 안나보고 죽겠다고 결심하고 사선
 을 넘었는 것이다. 그러나 노근석이란 그르다고 하지 말고 북한의
 정치제도에 대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면, 노근석의은 영웅적 걸음을 걸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항공사령부 간부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선대를 받았지만 이보다 더한 것은, 1952년 4월에 항공사
 령부는 야간 여성 폭격기들을을 리용하여 적진영에 혼돈을 조
 성하여 계획하던 중 경비행기 야크-18 형 2대를 준비하여
 38 연선 북쪽 상리원 이남에 은근한 지형을 따라 적은 활
 주로를 준비하던 중 소형 폭탄 200킬로그램씩 탑재한 다음 공화국
 여성비행사 영웅 해선희, 그의 가장 친근한 여성비행사 중대장
 상희 진을란 (해선희는 여성비행대대장 대위) 등이 리용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한 비행기 중 해선희 주조기가 이륙하지 못하고
 약 500 미터 전진하여 강랑이 앞애가 떨어졌다. 아침
 당행어 비행기에 적재한 폭탄들은 폭발되지 않아 천
 사에 반사적으로 하나씩 덕분에 목숨은 구원할수 있었다. 그런
 데 쓰러진 비행기가 쓰러지 못한 강랑의 앞애가 겪어 두려진 것만
 해도 비행사로서 일생의 영광이요, 다시는 비행장에 누워가지
 말아야 될 대신에, 정반대로, 그 이튿날 아침으로 항공사령부
 참모장 김원길 소장, 그 뒤에 항공사령부 비행부사령관 리활 소장
 두 장령들은 최고사령관 김일성이에 보낸 화기를 "항공사령부
 영웅적 여성비행 대대는 대대장 해선희 대위 명도하여

영웅적으로 적진지 포격 의무를 수행하고 자기 전시에 도다
 왔음. 보고자 - 소장 김원길, 보고하러 들어갈때 김원길소장
 과 리활소장을 대담한 기쁨으로 최근 사령관은 '땀어하고
 타운날 병행으로 김원길 참모장, 리활부사령관을 공장으로 응급
 식하고 해선외도 노짜가 되었다. 북한이 출파물과 라지오 방송은
 하늘의 용사들의 대성공이란 돌리기에 비행사들의 영웅성에 대
 하여 열렬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웅인지 해선외 대외도 아직
 노짜의 전장도 알지 않고 자기 심실에 들어서 날을 감추고 들뜨게 울고
 만 있었다. 녀자들의 심정이란 아이들의 심정과 맞혀 혼자서로 무엇
 어떤 잘달게 접수하나 외국항공들을 잘모른다. 그런데 자기가 하지 못
 하여 부끄러운 일을 겪어서 정반대로 나라의 최고책임자에게 보고하
 고 허위적 공훈에 표창까지 받게 하였으니 다른사람들의 얼굴은 밋
 우 빛기가 부끄러워서 우는것이였다. 진문란의 상외도 영어디론가 피하
 고 구름대에 나리나지 않았었다. 이런 형편에 처한 정치안전부장관
 들은 진문란어외 해선외 하고 심문하러 되었으며 전후비행은
 보장한 일부기술 근무원들 불러다 당화한결과에 사건은 대담
 하다는것이 해병되었다. 그후 안전부 계층으로 보고는 최고사령부
 정치안전부장 석산이에게 전달되었다. 석산이등 어에 대하여
 신속히 최고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그즉석에서 항공사령부어 내리
 갔다. 가던참에 비행부사령관, 참모장을 불러놓고 조서를 쓴다음
 해선외와 진문란어외 불러서 그 조서에 싸인케 하였다. 해선
 외는후과에 대하여 접을'적인 열기는 하였지만 자기 심정상 같은
 생각에는 차라리 죽는한이 없더라도 일생을 자기가 자기를노기
 고 살수없는 형편에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다음 이 사건을
 최고사령관은 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결하도록 하였다
 몇일후에 소집된 군사위원회는 항공사령부 전체 책임관부-
 사령관 왕건 어외 김원길 참모장, 군사위원 김해건, 정치안전부
 장 박완선 정치부장 전부 출석 재에 식하고 다만 리활부사령관

이후 설립된 군사위원 김태건, 함포장 김원길은 강박하여
 아부 받던까지 내리갈다가 1954년 사암검문시에 다시 과거
 사건의 번저지면서 설립, 후속 처단되었던 이상 두분은 소련출신
 간부로서 한번도 권속비행장에 나가본일이 없었지만 허복
 의 보고를 그대로 접두하여 최고사령관에게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죄로 자기 목숨을 잃었다.

이상과 같이 항공사령부가 총한 압을 당한후 항공사령관으로
 한 일부, 비행부사령관으로 리활, 참모장으로 오진우, 정치부장
 에 오시현, 기술부사령관에 최한규, 군사위원에 최일 등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는 어떤이 있기 수개월전에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의하여
 김책 정치사관학교 교장으로 선임되어 원빈군 총정치국의
 관할하에 당시 정치군관학교가 부름하여 있던 평북 함산군
 일함산에 가게 되었다.

조선인민군 김책 정치군관학교.



조선인민군 김책 정치군관학교는 번 처음 1947년에 평양과

남포 사이에 위치하여 있는 대한리에서 조직되었다 인민군
 대생장 초기에 본 기관 학교는 조선인민군 각 병종 기관들을 준비하
 는 모체였다. 여기에는 각 병종 반들이 다 있는데 따라 항공반
 까지 있었다. 초대 교장에 내각부부상으로 계시던 김책 선생이
 계셨기에 그 선생의 사후 1951년봄에 김책 정치군관학교라고
 명명하였다. 정치군관학교가 조직된후 교장들이 많이 교체되어서
 나는 그 학교에 7대 교장으로 임명되어 1953년 3월봄에 1955
 8월까지 일하고 다음 항공사령부 군사위원으로 승급되어 전근하
 였다. 나는 내가 항공 일사에서 김책 정치군관 학교에 볼 때나
 정치학교에서 군사위원으로 갈 때에 이것이 모두다 항공제
 1사 비행사들이 전쟁시기에 명중적으로 희생되어 싸운 억척어
 락한것을 충심으로 불어 돌아 나오는 사심없는 생각으로 결론 지었다.
 참 그 비행사들은 알으로도 자위조선의 진실한 억척어 락한것이었다.
 그런데 그중 많은 비행사들은 남연에서 공부하였다는 죄를 한양을
 당하여 지금 어떤 정치범 수용소나 형량조항에 가서 고생하고 있
 는지 알수 없다. 유명한 비행사 강대용 사단장은 벌써 내가 조선에
 있을 때 정치적 불신임자로 철거되어 지질한사대에서 일하고
 있었다. 현재 살거나 있는지, 또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정치학교에 도착하자 처음 강령을 검토하였다. 때는 별
 서 경전이 가깝아 모고 있어 전망 있고 각방편으로 유식하고
 건전한 기관들을 준비하여야 하였다. 때를이 군사주정들과 전후론
 련, 군사 과학과 어학에 세계 군대역사, 세계사, 사회물리학사 개념, 조선공산당사
 개념, 등을 충실히 이연 기관학교 강령 8원시간에 ^중경민리서, 조선
 노동당 후생사, 조선 정치 경제 지리, 조선 어문학 등은 어느정도 알맞게
 제반 하였을라. 맞이박 과목들은 자기 나라 언어기 때를이 학교 졸업후에
 자기 열성에 따라 얼마든지 보충할수 있었기 때를이였다. 다음 학습
 과정에 있어서 교장은 반듯이 조선노동당사를 강의하게 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거절하였다. 나는 교수 시간 배정시에 교원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하였다. 과학이란 사람이 백라전술하는 법이 없이 어떤 전문적 과학을 연구해야 실정에 달하는 법인데 나는 소련에서 공부한 것만 쉰 소련 공산당식나, 세제나 같은 것을 부분적으로 강의 할 수 있어도, 노동당 후생사는 최선있는 전문교원들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결론내리셔도 속생각에는, 내일 새로운 거짓말을 보충하여 변경시키는 거짓말 역사를 어떻게 학생들 앞에서 한탄할 것인가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것이 정당한 결론으로 인정되었지만 내가 항공사령부 군사위원직에서 철직될 때에는 모든 것을 뒤버려 전복적이므로 애독적 강령을 작성하였다고 하였다.

학교 편제는 일반적 연합부에 편제와 유사하여, 지휘관에 표장 부지휘관 겸 참모장 겸 교무부장, 작전부장-겸 군사학 전문학부장 다름 령사, 경제 정치지리, 어문학-노어까지 겸 등 부들이 있고 그 외에 정치부, 후방부교장 겸 후방 부부대장에게 속하는 운수중대장, 공급중대장, 양식부, 피복부, 재정 부리부, 후방 정리부 아래 복록장, 야채 재배 보장부 등 외에 2개의 학생대대, 홍선중대, 정비중대, 군악소대 등의 편제가 있었다. 이 외에도 상급 및 고급 정치군관들의 상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강습소가 있었으며 바 그에서로 약 백명의 군관들이 삼개월 기한으로 공부하였다. 나는 불학회에 교장으로 배치되자 이 강습소를 나의 군사상식을 제고 식히는 강습소로 인정하면서 주로 군사 과목에는 배배 놓치지 않고 참가하였다.

학회에는 고정적으로 21명의 소련인 고등관이 계셨으며 홍고를 예는, 전시에는 사감까지 전선 정치 부장으로 계셨고, 소련 조국 전쟁 후에는 모스크바 군사 아카데미에 정치학 박사인 게시던 노로코브 소장이 계셨고, 군사 고등에는 사단 작전 부장으로 계시던 리보도브

종파가 없었다. 소련 고문들은 우리가 작성한 학교 교육강령을
검열하고 그에 해당된 총 시간들을 검열한다음 각 학년강
들이 작성한 강령 내용들을 제 목별로 검열하였다. 그 외에
그들은 자기 계획에 의하여 부분적 상학에 참가하는 한편
야외 군사 훈련 시간에는 꼭 참가하였으며, 여유시간에는 산골채
기를 따라다니면서 산양을 하였다. 그 외에 호오일과 주일에는
평양에 계시는 총고문 라두하예브 상장과, 정치총고문 그리
프리에부 노장에게 가곤하였다. 그후 1955년 부하 군대의
사상 검토 사업이 시작되자 소련 고문들은 한평생 두 번씩 자
리를 뜨기 시작하여 1958년에는 전부 다 리 죽고 말았다

내가 군관학교에서 일하는 동안 최고사령관 김일성이 두 번
이나 학교를 방문하였다. 마번 전후훈련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는 한편 모항산의 자연 풍경의 특수성에 대하여 강조
하면서 모항산의 자연은 아주 웅대하며 그 자연의 아름다움
이 그리 웅장성과 짝어켜어 한개의 평등지를 어룩었다고 강조
하였던바, 아마 그는 그당시에 벌써 거기에서 혁명방물과
을 열것과 자기 별장을 짓을것을 계획하였던 모양이다. 그후
전원민적 준경을 받으신 김주봉 상임위원장어 오셔서 높은
고지에 놓여 있는 본현시에 가지 올라가 보셨다. 1953년
7월 15일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본시에 박정애 부위
원장어 학교에 데드하였다.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어 군관
학교에 올때에는 홍천모택에서 무권으로 알려지게 되었는어
원일연지 어번에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도착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모후 나시 짐강에 군관학교 전체 성원들을 야외
구덩이에 놓이라고 하면서 당중앙위원회 비밀프린지 콜 리
것다고 하였다. 당의 지시기 때물에 나는 그 즉시에 참모장게
지시를 주어 다 놓이게하고 나에게 보고하라고 하였다.

명령대로 노천 집합소에는 기관학교 전원은 경비중대성원들
 을 제외한 전부가 구분대 별로 흩어졌다. 나는 박정애 부위원장장과
 같이 집합소에 도착하자 참모장은 차렷 구령을 한 다음
 박정애 부위원장께: "명령대로 경희기관학교 전원은 집적되었습니다"
 하였다. 대답 대신에 부원장은 손을 들고 전체 연원들에게 앉으
 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참모장 김용현은 "차렷" 구령을 즉각 전체
 연원들은 앉게 하였다.

다음으로 박정애 부위원장은 연단에 올라서 자기가 가지고 온
 편지 봉투를 꺼내어 그중에서 배대낸 편지를 읽기 시작하였다.
 편지 봉투는 다음과 같았다: "허가이의 자살 사건에 대
 하여" 1953년 2월에 자살 저우지 폭력 이후 허가이는 김
 일수상의 지시를 기억하고 파괴된 저우지 지역에 책임적 지
 도자가 지도하지 아니한 결과 근처에 살고 있던 농민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다. 그 이후 당중앙위원회에서 허가이
 한당적 행동에 대하여 취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해서 해명
 을 요구하였던바 그는 해명을 준비하겠다고 하고, 위원회에 나오지
 않았다. 그 이튿날 다시 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꼭 나오라고 하고
 그 이튿날 즉 4월 2일 아침에 위원들은 다시 기다렸다. 그
 런데 원일인지 그날도 허가이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일인지 해명하려고 그가 살고 있던 사택에 전화를 걸어
 거기에서 대답하기를 허가이는 자살하였다고 하였다"라
 고 하였다. 조국에 대한, 당에 대한 전체 연민에 대한 벌
 절자나, 조국전쟁의 험악한 시기에 중요직책을 맡고 국사
 에 태공하였으나 끔끔한 해독자 변절자나, 여러가지
 듣기 어려운 인간의 보충적 도덕에 용어할수없는 말들을 당
 중앙 위원장으로서 함부로 낭발하였다. 노천 집합장소에

동양의 군중은 우선 지도간부들과 책임적 간부들은 모두 다 나
 의 알뜰한 처다봄(해서)이 부족한 '알도하지 않았다. 그것은 허가
 여가 소련서 나간 간부도, 또 내가 그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었다. 나는 일어나서서 관중에게 물으건어
 있는가, 하고 물으니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으며, 알할 사람이
 있는가 하고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나는 한쪽으로 의심도 하나
 서, 박정애도 소련에서 나간 간부로서(다만 우리보다 7년을
 앞서 - 1937년에 원동에서 사범전문학교를 조선말로 나감하고
 나간 사람인데) 해방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도리지를 지고
 왔을수 있든가 허당서도 정치군관학교 교장으로서 프린지에
 대한 결정을 전혀 자기 복해들 앞에서 내리야 하였었다. 그때
 물에, 이상과같이 말하였었다. "허가여는 조국이 신임하고 높은
 당적 국가적 책임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에서 동사
 들이 피홀티는 아주 끊임한 시기에 자기말은바 책임에 대
 한 해공은 조국과 연방에 대한 변절이다. 나아가서, 그가
 정은 죄를 당은 그대로 관대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에 불렀으나, 그는 여기에 대하여 자살로 대처하였었다. 이
 것은 명예하는 수령 김일성 장군에 대한 일시적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관학교 성원 일동은 허가여도
 프린지에 지적한(와)와 같이 한언까지, 한당적 행동을
 간행했기 때문에 그를 공노하여, 다시 한번 우리당
 의 정책을, 명예하는 수령 김일성 최고사령관의 영령
 한 정책을 지지 한다는 것을 최고사령관께 전하여 달라
 는 것을 우리당 중앙 위원회 박정애 위원장께 부탁한다"
 고하였었다. 그 회의가 매우 두시간에 걸쳐 끝난 다음 박정애
 부위원장은 우리 군관학교에서 자고 이튿날에야 프린지에 돌아갔다.

나는 박정애 부원장장을 데우고 몇시간후 역시 조양양으로 떠났던바 그
 점은 허가이가 자살할수 없는사관인데 왜그렇게 비러리 죽었는지
 몇가 하는것을 따지기 위하여서였다. 김철우로 만나 이야기 들으니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로 단판이였다. 편지에는 아쉽다면 허가이가
 일장초에 나가기 위하여 집에서 떠나는 시간이 되어서 자동차운
 전수와 부관이 자동차를 타고 오래 기다려도 자기방에서 만나오
 기 때 문에 들어가 보니 허가이가 자살하였더라고 하였는데 김철우
 에게서 들으니 부관과 운전수 2명, 간호장과 간호원, 열락병 2명은
 고정적으로 그 집에 방에서 벽을 사이사이 놓고 살기때문에 밖에 그런
 사고가 생겼다면 흉노리를 들었을것이고, 아쉽음 안색었다면 왜
 안자시는가고 검열할것인데, 하곤에 사는 운전수와 부관이 딱밖
 이도 그집에 허가이 문시켜 간것처럼 밖에서 기다렸다는것은
 우선 어찌에 맞어안는 말이며, 뜰재로 아쉽 7시에 단크사령
 관 최동덕 (허가이의 장인)께 전화하였기에, 최동덕 장군이
 8시에 허가이 살고있던 집에 도착하니 어제 저녁까지 있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허가이 시체는 없었다. 최동보는 보호병
 과 다른 군원 2명어 있었던바 그들은 아쉽 5시에 새로 교체
 되어왔는데 그대어 벌써 여기에는 아무사람도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편지내용과 현실은 전혀 단판이였다. 최동덕
 장군은 사실 허가이 맞싸우 황금철이 나관에서 어제 아침에
 출장왔기에 그와함께 어제 저녁에 허가이 집에서 저녁식사도
 하고 밤 12시까지 잤다가 집에 돌아갔다. 그런데 아쉽
 8시에 보니 단판이 되었다. 동덕장군은 허가이 집에서
 김일성 사령관을 찾아서 작기가 직면하고 앓는 हाल
 상세히 보고하고, 물었다: 왜 죽은 사람을 그렇게 급하게
 밤사이로 장례하였는가? 허가이는 적어로 국가 모인인데 시체를

41.

다시 파내고 해부하여 국가검진 위원회 결론을 받아야 된
다고 하였다. 그렇지 아니면 어떤 해독자 등이 고이적으로 죽어
있다고 보른다고 하면서 어제 저녁에 그와 만나서 이야기
하고 나서 해부하는 말도 하였다. 그 말을 들은 김일성이
회집에 나오는 높은 음성으로, 작중하여 죽은놈에게 무슨 검진
위원회가 필요하냐, 당신은 왜 거기에 갖는가? 하고 소리를
치니, 최동석 장군은, 사람이 살아서 일할때에 수상님의 부탁
지 죽은 다음에야 자식이나 친척들이 처리하여야 도리가 되지
않는다고 불어, 당신은 잘못을 알고 가서 썩물러나라고 하였다.
전화로 어떤말성이 있는다음 최동석 중장, 연포 사령관은 철척후
방리였다. 그후 또 3일이 지난다음 제2군단장 정철우 장군도
허가어 물리에 가따본죄로 철직, 제대되었이며, 차후 추방
당하였다. 그런데 물리는 허가어 와 같이 일하던 윤전우 2명, 부관
간호장, 간호원, 열락병, 회사원 들을 밤으로 전부 어디로 보냈는
가? 왜 허가어를 그렇게 조금하거 밤으로 불었는가? 모든것
을 분석하여 보면, 그 형편을 독견하지 않아도, 허가어를 안살
하였다는것이 확연하였다. 허가어 낫쌀 마이애는 남도리와 같이
나중에 가있다가 조영양에 몰려와 살면서, 자기 아버지랑 같이
있던 사람을 하나라도 만나자고 극히 예를 쓰던중 3년이
지나서야 윤전우 한1명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그 환경을
직서히 말한면서 자살이란것은 재발할간 거짓말이고,
뒤에서 자동충으로 해서 죽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기는
이사전에 대하여 1쌍세 명수종을 썼는데 자기앞에서 이 말이 낫
다는것이 활로리이면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 하였다. 그때 물에
라이애는 어물제를 공공연히 레기부터한 다만 자기 형제들
끼리만 알고 았다가 소련에 돌아온다음에야 남도리파도 알리었다.

쓰련에서 쓰달린이 기로브가 제 17차 당대회에서 선거된
 당 중앙위원들의 전원회의에서 당중앙 정치위원을 선거할때
 쓰달린보다 기로브나 찬성 후표를 더 받게 되었다. 정치
 위원회는 총비서를 선거하여야 하였으나 총비서는 정치위원
 회의에서 보충선거로 선거하는 법이었다. 첫 정치위원회는 종전
 정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쓰달린이 개회하고 누구를 총비서로
 선거하겠는가 하고 물으면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니 모르코니
 기로브 정치원은 말하기를: 후표를 제일 많이 받은 기로브
 가 총비서를 되여야 한다고 하니, 기로브는 일어나 말하기를
 쓰달린은 브이. 레닌이 추천하여 총비서가 된 사람인데 쓰달
 린이 계속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말하고 자기에게 대한
 의견을 취소한다고 제기하였다. 그러자 쓰달이 또 다시 총비서
 로 선거 되었다. 그 후 일변이 지나지 않아 기로브도, 모르코
 니끼르제도 암살당하였다. 이것을 들은 김일성은 쓰달린이
 죽자 4개월이 지나 허가이를, 다음 박헌영이를 의욕으로 남
 한 이전 광산당 관북을, 다음 계획적으로 계속 간부잡이를 하였다.

나는 평양에 나가 하루동안 무그면서 쓰련서 나온 여러 동
 무들라 이야기하며 보았으나 누구든지 확정할 말은 하지 못하였
 다. 그 당시 최동석 장군은 벌써 쓰련에 가고 없었다. 나는 학교
 에 돌아 오기 전에 최동석 총정치국장과 김을규 부국장을 만나서
 학교에서 진급 시험 진행 정형과 각 대대, 중대, 소대들의 병사들
 새로 건축하는 정형에 대하여 보았고, 박정애 부위원장의 내 도에
 대하여서도 보았었다. 그러나 전리 내용과 허가어 죽음에 대하여
 서는 입을 벌이지 않았다. 총정치국장은 정전 단판어 특허 조인
 된다는 것과 이번 815 병력은 광복절과 전승을 할 때 거기로부터
 성대히 보내 되니 잘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는 1954년에 김응 부상의 권열을 받았고, 1955년에 군사교육
 국장 허봉익의 권열을 받았다. 김응 부상은 다음 군사과학 국장으로
 내려 먹었으나 당시 인민군대 간부들이 군사 정치적 수를 문화 상식
 적 수준으로 보아 가장 모범적 인물이었다. 또 체격으로 보편적인
 변으로 보아도 그러하였다. 중국서 나온 독립동맹 간부들이 몽땅 철
 산되는 바람에 황대와 천대를 견디지 못하여 대동강 물에 빠져
 자살을 하였다.

나는 1954년에 당중앙위원회 박영빈 선생의 추천에 의하여,
 물론 총정치국장으로 합하여, 몽고 연인 혁명당 제 12차 당 대회에
 인민군 대표로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대표들과 같이 파견받아
 참가하였다. 총 대표위원은 31명이었으나, 단장에 당중앙위원회
 리호운 행정부장, 강원도 도당위원장 김원봉, 다음 4가지 합하여
 31명이었다. 우리들은 1955년 11월 28일에 북경에 도착하여
 리영호 대사의 접대를 받아 2일 동안 북경 구경을 한 다음 11월
 2일에 몽고 수도 울란바타르에 도착하였다. 이때 몽고 내각수상에
 는 지제제발,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에는 삼부가 있었다. 우리 대표단
 은 3일 동안 걸쳐 몽고 수도, 몽고 각도 (아이마크) 군 및 농촌들
 에 돌아 다니면서 유숙인들의 겨울 집착림, 가족들의 생활 형태,
 몽고 산업 기업소들을 보고 동족 상잔으로 인하여 생겨진 고아
 들의 학교, 식당, 숙소 등을 구경한 다음 북한 대사 한일우 대사의
 초청을 받아 식사로 갈아하였다. 대회는 3일간 계속되고
 11월 11일에 몽고 연립공화국 창립 기념을 맞은 다음 북한에
 우리 대표단은 대회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소련 대사 블로코프
 를 방문하였다. 그 당시 소련 외무상 위신스키가 니우요르크
 에서 사망하였기에 추도의 인사를 드리게 되면서였다. 블로코프
 는 쓰팔린 시기에 수십년 동안, 내각수상, 부수상, 외무상 등 직무를

쓰러진 사육 후르노브의 처여지 정책을 반대. 한 쥐로 봉고에 물러가
없을때였다. 그는 전쟁 3년간에 얼마나 끔찍하였는가 물고 소련
에서 다 돌아올것이라고 하였다. 이때의 흥역원 역할은 내가 담당
하였다. 나는 봉고에서 분향산에 돌아와 몇일후 항공사령부로 전근
되었다.

항공사령부.

내가 항공사령부에 도착하였을시 사령관 한일부, 비행부사령관 리활, 참모
장에 오진숙, 정치부장에 모시현, 군사위원에 최학일 (박정애 부원장의
사촌 모씨) 있었음과 내가 도착함으로 최학일을 정치군관학교 교장
으로 내리 보냈다. 당시 항공사령부 편제에는 그가 관리하는 연습부대
들로: 항공제1 방사기 사단, 항공제2 습격기 사단, 항공제3
경 폭격기 사단, 직속 여성경포격기 대대 와 전체 전투부대들의
후방 보장을 위한 한대의 기술사단이 있었다.

6.25 상반 초시기에는 전체 항공력이라고 일개 연대 전력량이
있었다, 방사기는 전혀없고 소련제 프로펠터 비행기 야코비체-9
전투기가 기본부장이고, 일-10 습격기 대대, 두-2 폭격기 대대 등이
있었고, 연습기로서 야코-18 과 비보-2가 몇대씩 있었다.

전쟁 나리에는 1사는 안동에, 2사는 봉성에, 3사는 공주성에 있다가
날리에 선덕주, 의주에 나와 있었다. 다음 정전이 되자 1사는 울안에
2사 내림, 3사는 울현에 주둔하여 있었다. 당시에 벌써 항공
부대들은 기본 무기가 도덕적 마찰을 당하여 불연은 하나, 필사를
제외하고서는 전투능력은 없었다.

최후 항공부대도 김창만의 지로하여 군대에 사납 겁은 바란
에 걸려 사단장 연대장들은 봉당 갈리우고, 기본 실력 부대로
연정부대로 인정 되던 항공 방사기 사단은 완전한 파괴상
태 처하였다. 기본 원인은 소련 사상이 농후하다는것과 자유투의
적 경향이 심하다는것이다.

장학봉.



장학봉 채판나 부부 1967년.

1988년에 평양 "그레야" 출판사가 출판한 "영예로운 위훈"이란 책 제 92페이지를 열거하면 "용감한 태들"란 제목하에 6.25 상잔에 참가한 비행사들의 업적을 그리면서 제 항공일사 비행사들은 하나도 없고 공중전 배경은 이고 비행기들이 공중전 경향을 묘사하였다. 그런데 그 배경 아래 공화국 영웅 4명을 전시하였는데 그 4명중 이고 비행사는 한명도 없다. 그 네명중 김기복은 WK-9 형 비행기로 용감하게 적기들을 추락시켜서 1950년 6월에 리순순이 베-29를 추락시켰다는것은 지니 빨간 거칠말이고, 강승현 이와 김화룡은 신의주 상공에서 훈련 비행중 미국 비행기 사냥꾼 2대가 서해바다에서 슬릿이 날아들어와 라-10 비행기 4대를 떨어뜨려 2대를 추락시켰다. 제 2사 비행사들은 신의주 상공에서 5명이나 추락되었다 그러나 적기는 한대도 떨어뜨리지 못하였다. 도덕적 타격을 당한 남은형 발랑개비 비행기를 어떻게 최신행 식비새기를 떨어뜨리고, 공화국 영웅 메달을 그린책을 망신 시키는 격이다. 군대내에서 김창만의 진행한 사상검열 사업은 백주에 흰것도 검다고 하는 모양이다. 역사적 사실은 소가지 못하게 되었다는데 북한이 출판물은 최진해방전후에 한가도 아니한 오백용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도 주고, 방드스크에서 한생한 김정일을 백두산에서 한생하였다고 거기에서 귀를 집까지 떨어놓고 선전하니 백성은 어떻게 그 날들을 접수하라?

사람이란 아무런 높은 직분이 없다고 하여도 씩씩하여 자신의 상 작기를 받들어, 있는 국가 정책이 현명하지 못하고 겁이 어둡-어둡하게 흘려 배기 모양으로 보이면 그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사멸되어 가는 법이다. 본래 그 정부가 들어앉은것이 아무런 유래도 없이 유력한 부들은 먼저로 물타치곤 25 소련군단장이 쓰달린의 승리를 받아 영웅적인 것

이 두 형은 믿음성은 없었으나 조선공산당 숙주머리에 서, 조선에
 나가 김일성이 큰 잘못과 전조선에 공산제도를 채우는 것이 기본목적
 여타 하였기에 조선간부들은 누구나, 잘못비타이 여타의 불란에 김일
 성이 큰 대치 할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면 조선공산당 지시에 어긋
 나기 때 불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이 온
 각기 야망이 흐리기 때 불어 허가이를 육체적으로 제거하였다.
 허가이가 없어진 다음 불어는 조선에서 나온 간부들은 벌써 마음어
 식기 시작하여 그후 남한로동당 간부, 중국 독립동맹 간부, 박금철
 리호순 선생을 위수로운 지방 간부 청년들은 김일성이 북한 정치적
 호대를 견고히 하느라 고 하였지만 그 정책의 대 일부는 그 정치적
 호대를 뒤손 들어 금어설게 하였으며 그 지도자에 대한 증오감을 배가
 하였다. 6.25 전쟁후 북한의 간부들은 끼리-끼리 짜고 매일 저녁
 이면 불 후렴, 가르다, 화도등을 가지고 도박등을 하면서, 어떻게
 거렁고 야기 들어 받았기 때 불어, 이것어다 사상검논의 종파
 사건의 근본으로 되었다. 1953년 7월 3일에 허가이를 살해
 (안살) 하고 김일성은 조선에서 온 간부들의 원심력적 타격을 받았다
 자기와 그렇게 친하던 사람을 죽인 일어 아무리 비밀적으로 했다고
 해도 벌써 일면어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조선에서
 나온 사람들은 직접관계가 있기 때 불어 그것어 안살이란 것을 다 알게
 되었다 만약에 그것어 안살어 아니고, 김일성이 주장하든대로 자
 살이라 해도, 그가 김일성을 증오하여 죽였을것어지 좋아서 죽었
 을 수는 없을것어 어썩가, 허가이가 죽었다는 그 사실은 조선간부들의
 반 김일성 사상을 발작시킨것이다. 누구든지 김일성이 큰 앞으로 계몽
 믿을수 없는 사람이고, 이 나라에서 살수없는 나라라는 것을 발작시
 했다 그 때 불어 해방된 북한어 같은것은, 그 해방을 위하여 그렇게 약
 전고속하고서도, 최대의 명예로 생각하고 이제 불어는 내 조국에서 자
 만대 내티- 내티 살겠다고 생각하고면서 가고서도 허가이 사건의

있든 뒤붙어는 180°로 돌아왔다. 벌써 1953년, 학생들의 개혁
 시키 불어 소련 출신 간부들은 100%로 아이들을 소련에 공부하러 보
 내었다. 조선 학교에서 공부하던 아이들도 전부 다 돌려, 원칙이
 없는 사람들은 원칙 없이, 원칙이 없는 사람들은 고아들이
 공부하는 함북에, 소련의 각 도시 -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노보시
 비르스크, 모스크바 등에 보내었다. 부분적 가정들에서는 아이들 어
 부나 어리기 때 불어 북한까지 달아보내었다. 부분적 간부들은 코동
 당의 "원자성과 정당성을" 믿고, 아이들도 공부시키고, 또 사상검토에
 의하여 그 아이들을 데리고 협동농장, 광산에 나가게 하여, 2-3년
 후에는 어 부어나 아이들어나 다 "원망" 되었다. 이것이 김일성의
 관대한 처사다. 그러나 그를 전업민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어떻게
 믿겠는가? 주의라는 사상적 관점인데, 주의 중에서 가장 막대한 주의는
 공산주의라고 이전부터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이주의가 얼마나 자기 희생은
 냈고, 또 얼마나 사람들은 희생시켰는가? 전쟁 초기에 연변로 제
 13사 참모장 김학구가 작전지도를 훔쳐가지고 적편에 투항하였다. 그가
 적편에 넘어갈 때에 다시 공산군 편에 넘어오려고 넘어간 것이 아니다. 그
 러나 정전이 확정되자 김학구는 밤사현 (황해도 도당 위원장)이 되
 고서 포로 교환시에 입북시켜(원서) 외국측 수석대사는 그들과 "말하기를,
 세상에 제일 막대한 인간은 공산주의자인데, 당신들을 우리측에 남게
 된다해야 앞으로 우리에게 더 이익을 줄 일이 없겠기에 당신네 측
 에 넘어가서 정당한 해결을 받으라고 하였다. 사실 김학구가
 적편에 넘어간 초기에는 그를 광쟁한 보물보다 더 소중한 여객
 유엔 총회 연단에 초대하여 남침을 증시 하였으나, 어제 정전
 이 되고 보니 그는 험개 변질자, 다 쓰고 버리게 될 장판 걸레가
 되었기에 그를 북한에 도루보내었다. 공산주의자 중 김일성 같은
 지도자가 없었기에 인간은 어떠한 결과물을 내리었다.

나는 평양에 전근 되어 올라와 있으면서 여전에도 가까이 지우던 김일파 더 가까워져 있었다. 작문 김일은 서부전선, 본복은 중화에서 있었으나 가족은 평양에 있었다. 때문에 매호로 일하며 일요일 양일은 거이 나 같이 만나게 되었다. 전쟁전에는 전사한 안동숙, 박출이 우리 행배에 항상 같이 참가하곤 하였다. 어떤 때에는 평산양도 같이 황해도 송화군 방항에 가곤 하였다. 이렇게 지내던 차에 1956년 신년 설날의 체코 헝가리 연회에서 작문 김일이와 연변군 총참모부 의사 복장 전문흥이 정복이 없으면 몇달 지나 김일이는 철적 제대되고 나는 다시 김책 정치군관 학교에 가게 되었다. 김책 정치군관 학교에 가기 전에 송정희국장 최공복상장은 말하기를 제나 집안군 군사위원으로 가라고 권고하였으나, 나는 집안군에 나가서 고생하기 보다는 정치학교로 가련 하던 일이기 때문에 철하티라고 생각하여 그런 결심을 하였더니 화후 그 결심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왜 내가 어디나 다른 부대에 가지 않고 여기에 도루 왔는가 하고 자기가 자기를 꾸렸다. 내가 어렸을 때에 우리 큰 할아버지가 나에게 하 이르기 를: 대 사람에게 길은 한변밖에 없는 나라, 하신 말씀은 티제 와서야 깨닫게 되었다. 사람의 늙어가는 것도 외길이고, 공부 하는 것도, 심지어 전승후 개선을 열되 돌아오는 것도, 또 역시 환갑 되는 것도 한번이요, 죽어서 땅 밑으로 가는 것도 한번이다. 그런데 이 철학을 위반하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니, 내가 기대하였 것보다 정반대를 말하는 듯하다고 있었다.

후방부 심원들이 동성4가 휴양을 5촌을 차량에 적재하다가 화재가 생겨서 전체 동성백이 동평 타면서 평양 강계간 전 화동화까지 오 일 주철 식혀 최고 사령관의 추경을 받아쓰며, 재정리장이 평양에 나가 현금 70만원 을 따라 갈 때에 때워서 말성이 생겼은가 하면 후방부에 화재가 나서 재정리에 있던 현금 17만원이 동평 타 버렸지, 저 1대대, 1소대 병사에게 화재가 생겨서 말성을 이르켰지 하여, 어떤 저런 사고들의 여전 3년 여간에는 한번도 없었던 것이 어떻게 자유생기든지 말이 후방부 사대라 없었다. 이렇게 재비 없이 자기 걸음을 꾸지르며 살아 가는 데다, 중앙으로 불어 오는

노석송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불발케 하였다. 박창익
 이 철직 강직된 다음 박영빈이 당중앙 조직부장이니 정치위원
 이던것이 역시 철직 강직되고 그에 따라 박의완 부주상의 철직
 강직되어 농촌 협동조합에 나갔으며 당중앙 산업부장을 지내던 고하만
 이 철직, 원빈권 해군 사령부 참모장 공화국 영웅 김철성이 철직 강직되
 여 군사 아카데미에 수강생으로 보냈으며, 총정치국장 최종학이로 철직
 되고 그 자리에는 김책 정치국장과 정치부장, 함경북도 도당 위원장으로 지
 내던 사람을 감당안하여 놓았다. 나는 어린 환경에서, 사고 끝에
 사고를 걸음 법하다가 결국 철직되어 1958년 황해 12고사로 사단
 정치부장으로 평양북군 강서군에 내려가 약 6개월간 있다가 연변
 군 최고 사령부내 포병사령부 정치부부장으로 평양에 올라와 약 1년
 간 일하다가 권시에 라박상을 당한 척후와 오른편 다리 화재상어
 병증이 다시 재발되면서 괴롭게하여 용성 원그리아 야전병원의
 입원하였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일지리에 나와 약 6개월일
 하자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당내 사상적 불합격 분야에 있어서 교조주의와
 관료주의 해독적 행위를 청산함에 있어서"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선전 속 관료들중에서 불합격분야에서 활동하던 분들을 동당 정치적으로
 격을 세세하고 소탕하였던바 그 관이 정상진, 전동혁, 기석복 그외
 몇몇 명은 당에서 엄중징고를 받고 일지리에서 철직되어 또 어딘가
 하부 말단에 내려가 부산계급-로동훈련을 받아야 하였다. 이들은
 이렇게 되자 이어 소련에 귀환할 수속을 소련대사관을 통하여 하
 고 있었으나, 그들과 함께 그전에 벌써 형벌을 받은 장은길외 박
 해철 등 8명이 동시에 소련에 귀환하였다. 이당시에 많은 간부들은 책
 받으며 하부에 내려가면 죽음의 길이란것을 알고 말하기를, "참 소련
 서 온 간부들은 행복하다고 하였으며, 그것을 갈래가 있기때문에
 라고 하였다. 참고싶기도 하였다. 사실 그당시에 벌써 소련에
 하부에 내려간 사람들은 전부다 중병에 걸리거나 사망되었고, 가족과
 아이들은 해방 불행 되고 날았다.

이 그루바가 떠나오자 나로 하여 귀환을 수속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수속을 신속히 하기위하여 당중앙위원회 리호순 행정부장을
 찾아가 수상하게 나의 성원서를 드리고 해결하여 달라고 벌었다.

리호순 씨는 암씨가 취하면서도 공명정당하였다. 귀환 후에는 일족
일 여자로 비문되었다. 다음 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장께 소련국적을
획득하여 달라고 하면 귀국으로 허가하여 달라고 청원으로 소련 대사관을 흥
하여 제출하였다. 이 후로도 딸처럼 어머니로 취급되었다. 내가 떠
난 후 당중앙위원회 박금철 위원장을 위촉하여 리호순씨 및 기타 간부
들로 반김일성 구테타 준비 모해로 죄를 지어 철적 처단 당하였다는
것을 들은 나는 리호순씨를 몹시 애도하였다. 나는 1954년 11월
에 리호순씨를 단장으로 모시고 북경을 거쳐 몽고 연변공화
국 연변혁명당 12차 당 대회 참가차로 갔던 일이 있었다.
대회가 끝나고 몽고 연변공화국 창건 30주년 연회가 11월 11일에 있
었으나 이 연회참가자로 우리 대표 32명도 연회장에 오게 되었다.
연회장 정문어귀에는 제2전발 수상어 자기부인 러시아 여자 이리
나를 앞세우고 각 나라 대표들을 영접하는 순간이었다. 우리 대표
들은 리호순 단장을 앞세우고, 내가 제2번 자리, 김원봉이 3번
자리 순서로 서서 들어가면서 연사를 올리는 과정에 리호순 단장은
서양 예절은, 여자화 선저 연사한다음 남자와 연사하여 되라
원칙은 모르고, 제2전발 여자 - 부인 이리나를 휘돌아가 선저
제2전발하고, 다음 단바 비서하고 연사한다음 돌아와서야
이리나 하고 연사하게 되었다. 이것이 서양도덕에 위배된 것이었
나, 운백한 리호순 아버지가 동양 도덕 그대로 준수하였던 것이다.
나는 그 후 그 후 그 이야기를 하니, 그는 말하기를 씁쓸소리 다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그를 법대로 살고, 우리가 우리 법대로 살것이 아닌가
하면서 어찌던 서로 존경하고, 위법하지 아니하면 된다고 하였다.
박금철이와 리호순 두분은 참 씩씩하고 개끗하고 양서럽 순박한
간부들이었다.

1958년 7월 14일에 북반에 도착한 지 13년 만에 현연들
의 대대 눈눈의 녹어 보이며 있고, 1년 전 간사한 듯이 비바가 울음이고
미래 현연들의 끊어질. 내나라 내족을 하질하고 눈물흘리면서
다시 소련에 귀국하였다. 소련 모스크바에 도착하니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부에서 2도 조직부에서 1년 전 불타기에 거기에
가게 되었다. 모스크바 소련공산당 중앙분부에 찾아가니, 우리가 기다

리고 있던 당신께 대한 평정서가 왔다고 하면서 내어놓는 것을 보니 조선 로동당 조직부에서 써보낸 나에게 대한 평정서였다. 그 평정서는 로어로 썼던데 그 내용은: 장혁철이는 조선에 어느때에 나왔으며, 무엇을 하였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원주건설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조선인민의 조국전쟁에서 용감성을 발휘하면서 공화국과 로동당을 위하여 영웅 무쌍하게 투쟁하였으나 맞아막 시기에 일부 돌아가고 있는 자유주의적 경향에 휩쓸려 조선인민의 전설적 영웅인 김일성과 그의 항일부대를 비방하는 반당적 반인민적 행동을 감행하였다. 그러하면 1956년 새해 설날이 연회에서 이르렀던 사흘에 대하여 쓴다음

이런 자유주의적 경향이 농후하여, 상부에 존엄성이 약한 관계로 로동당은 관대히 처리하여 그의 요구대로 소련에 귀화시킨다고 썼다. 나는 평정서를 읽은 조직부 부부장께서 어떤 추종적 질문이 나왔겠는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말씀하기를, 좋다 여쭙은 조선 로동당이 평정한 것인데, 우리에게 다른 제충으로 발송된 평정서도 없다고 하면서, 나에게 물기를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였습니다. 나는 대답하기를, 우선 부모들이 제시한 다슈켄츠로 보내줄 것을 요구한다음 그 후에 가서 사혁보장과 나의 취직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조하여 주어야만 좋겠다고 하니, 그것은 대답하기를, 지금 조선과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운동이 임시적 정치적 운동인데 앞으로 조선으로 꼭 일하러 드루 갈수있기때문에, 약 3-4년 기간에 정치 사상적 과학적 상식을 더 보충하여 가지고 가는것이 좋을것인데당신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고 물는 날에, 나는 좋다고 대답하였다. 그는 계속 하여 말하기를 3-4년이 지나가면 강가에 물도 많이 흘러 갈터인데, 그 나라들의 정치도 변할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계속 하여, 근대내 정치일꾼들에게는 정치수준을 높여야 하는것이 좋은것이며 다슈켄츠에 가서 중앙고급 당학교에서 공부하는것이 좋게 다하고 한다음 다슈켄츠에 도착하면 당중앙위원회 조직부장 사파예브 에게 찾아가면 공부문제, 사혁문제 경제문제 까지 다 해결하여 줄것이라고 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소련부담성 총참모부 간부부에 가보라고 하였다.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할련

무엇을 간부국에 찾아갔다. 거기에서 나는 리대비, 3개월분과 일년
간 군사 칭호비를 받을 때 대한 포병지를 중앙아시아 군구 간부국 전달것
받아가지고 하유겐츠에 나왔다. 하유겐츠에 도착하여 어어
사행을 배정받았으며 부인의 취직문제 아이들의 학교문제를 해
결한다음 9월 1일 리리 나로 당중앙 고급당학교에 가게 되었
으며 여기에는 벌써 일년 먼저 조선에서 후방리여온 작은 김일,
기석복, 정상진 리훈백, (정월봉, 김용학, 박태섭, 송진파 등 동지들이
벌써 수강하고 있었으며 차츰 나와, 장철, 정철두가 도착하여 공부
하였다. 조선 옛말에 - 다리 불러진 노루도여 한골에 울었다고, 북한
에서 제일 나쁜 열골으로 후방된 그사람들이 어골에 돌아와 눈은
확 쉬고, 돈도 넉넉하게 쓰고 있으니 참얼이나 행복하였는지 나
는 지금도 생각하면 즐겁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한해에서
는 나의 부인 처단야의 덕분이였다. 나는 "선화"로동당 약질
분자들의 말대로 허바락에 내내가 열해 고생하다가 다시
올라오려 하였으나, 나의 부인 처단야는 그것이 절대로 안된
다고 하면서, 안가겠으면 자기 혼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간
다고 하니 할수없이 쓰련에 왔다. 나같이 고지식한 김철우, 안철,
장익환, 김철순, 허익 선생, 권일 등등 동지들은 가족들과 같이
영영 없어지고 말았다. 북한 역사에서 로동당의 지시에 따라 허부
에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 위에 올라온 사람은 없거나 한가?
천만에 말씀, 옛말에이런 듣거나 좋지. 나는 참 부인덕에 죽은의
참정에서 빠져 나왔다.

나는 1962년에 당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4월 2일 불어 두르비
크 공화국 경공업성 산하 피혁잡화공장 지배인으로 파견되었었다.
나는 이공장에 나와 일하면서, 생각하기를 여마도 식년 동안에
강물이 많이 흐르지 못하였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였던바 그것은
내가 다시 조선에 가게 못된 경우와 조선과 중국에서는 한노
위등이 더한심하게 불어서 소공 국경에서는 전쟁까지 야기식
기지 않았던가?

나의 격력에 내가 피혁제품을 만들어 보지 못한 사람으로써 '안'이
고린한 일로 있었으나, 공장도 대충이 힘으로 움직이고, 지도 그대풍

열성과 창의에 따라 결과적 승리로 볼것이나, 그 뒤 전쟁이나
 별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군공을 장악하는 문제, 대공의 열성
 을 발휘하는 문제, 창의 고안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었다 군공을
 장악하자면 사회보장 문제를 기동성있게 해결하면서 로동자 특
 에서 핵심분자를 골라잡아야 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나는 각분공장
 책임자, 기술공정사, 기술 공정 건설원, 기술공정 총리고안 일꾼들, 기계
 기술자들로 "좋은 물에 놓고 평범고화회로 하여 선진 기술자들을 포함
 하는 한편, 우수한 기술자들을 선발하여 소련지역, 어디나 제한
 없이 3명, 4명씩 출장보내어 하공장들의 선진기술을 도입케
 하였다. 그와 함께 중앙에는 피혁감화 제품이 많이 생산되
 나, 피혁으로 생산되는 운동기구들은 전혀 없었다. 그때 물에
 축구공, 배구공, 야구공 농구공 등으로 맨 들부 있는 기술자들을 급
 속히 양성화해서, 피혁공장들의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신속
 한 시간 내에 그 제품들의 견본을 정어 소련중앙 상품전람회
 보내었다. 그 결과 2-3년 내로 공장은 확대되게 되었으며, 생
 산 리돈도 높아졌다. 다음으로 운동복을 생산한다, 운동화를 생
 산한다. 무엇보다도 체육에 관 소든 물건 - 고기잡이 끈들을 위한 천막
 무엇보다도 약 100종을 새로 도입생산하여 목가에 리돈을 고조로 높여
 벌어서 1975년에는 새 공장으로 150만 달러의 설비 예산으로 정
 기 시작하여 1979년에 완성이었으며, 안지산 주에 새로 체육-물
 등 시설품 공장을 새로 정었다. 이렇게 생산기업소가 확대되고
 공장 리돈이 높아지자 경공업성과 지역 행정 및 당기관은 우리
 공장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며, 나에게 대한 관계도 꼭 다르게 되
 여 내가 20여년간 공장지배인으로 일하는 동안 계속 지방 및
 시 소비에트 대위원으로 정부적 범위에서 진행하는 큰 행사들에
 거이나 다 참가하게 되었다. 나는 20년 동안 공장지배인으로 일하였
 으나 항상 관에게서 칭찬을 받고, 료량은 수취받았으나 책벌은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기간에 능동차는 3대를 교환하였으나, 운전수는
 한번도 교환하지 않고, 20년간 한 운전수가 나를 배워가지고 단였다.
 다음 두리다 년급생이 되어 일자리를 그만두고 서로 년급생으로 넘어갔다.





우르베크 공화국 경공업성 피혁제품 생산관리국장 리.아. 치따린 씨가 나의 환감연회에 참가하여 축하하고 나와 키스하는 장면.

나는 최대의 힘을 다하여 공장의 능률을 확장 제고시키고 그에 따라 공장의 위신도 제고되고 있을 때에, 강가에 물은 많이 흘러 어느덧 벌써 내날이 60이 넘어 70 줄을 잡고 있을 때, 즉 1979년에 환감을 쇠게 되었다. 나의 환감 연회에는 나를 축하하기 위하여. 상업관리국장 셰르게예브, 원료자재 공급국장 리블라지리르, 피혁 산품 생산관리국장 치따린, 구역당위원장, 구역인민위원장, 공화국 상업성 체육운동 상품 관리국장 고관들 이외에 내가 일하고 있는 공장 직원들과 나의 친적 친구를 합쳐서 300여 명이 참가한 연회가 되었다. 환감에서는 우리 조선예절대로 전체 4의 자식을 논군 들어 혈족 출신관계와 면영상 차례에 따라 술잔을 벗어 돌리고 절을 들 하면서 다뜻하고 애정 담긴 축하도 하였다. 이 가정 예범어 끝까지

래빈 측사들이 었었던바 제일 먼저 나의 직계 상관 경공업성
 피혁 제류 생산관리국장이 먼저 연설하였다. 다음으로 뒤이어
 가면서 다른 기관 대표들과 친구들이 연설하였다. 우리 공장 기사장은
 우즈베크 연립에도 불구하고 조선예절에는 환갑에 걸하는 법이라니
 나도 걸을 올리겠다곤 하면서 걸을 하였다. 이렇게 환갑이 지난 후
 이년이 경리하자 나는 자기 직무를 기사장에게 맡기고 간부부
 장 직무로 하고 복송기사 업무로 하고, 원로공급상급기사 직무도 수행다가
 1987년에 40세 전강이 되자 회직하고 사회보장으로, 연금생으로
 나왔다. 내가 연금생으로 나오기 2년전에 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어생겼다. 조선 6.25 상잔에서 세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가슴저린고생을 겪으며 사선을 최치고 용행사라는 나의 부인 단냐
 는 그 전쟁이후 계속 위병으로 고생하다가 그 병이 위암으로 넘어가
 서 1985년 9월 29일에 하슈켄츠 중앙내과병원에서 64세를 일기
 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단냐 앞에서 반듯이 직하여 책임을 다하지
 못한것과 그를 노여된 일이 많아으나 그는 압고생, 경제고생도 많이
 하면서 나 아이들을 다 키워 시집장가를 다보내고 나의 부모들 앞에
 서도 직하여 할일을 다 지키고 다만 일제는 아이들이 사는것을
 코다란 영예로 보면서 행복하게 살수있는 그 날이에 애절하게 세상을
 아깝하였다. 북한에서 사상검토 운동이 검은 광풍이 공화국 전지역에
 휘황하여 무신-무신하던 환경에서 물은 길로 찾아 나를 건지
 가리고 온 단냐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아깝우랴.

연금 생활에 나와서 제일 즐거운 일은 재노 조선인들의
 문화협회 조직을 위한 1990년 초 모스크바 참립대회였다.
 53년 동안 원간 도덕적으로 진반하여 연력에 제대로 들리
 못하고 진정한 인권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던 재노 한인 대들
 들은 모스크바로 달려갔다. 모스크바 모코자브리 대회실에는 삼백
 12명 이상이 되는 각 공화국, 시, 주 대표들이 많아 있었고, 이런 대
 회가 진행된다는 소문을 들은 모스크바 시에 살고있는 연노하신
 남녀 한인 십여명 이상이 아무런 초청장도 없이 회의 진행되는 접수
 실과 복도에 앉아서 한인 권리에 대한 새소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대회 휴식 시간에 그 북로 접대실에 앉아서 많은 노인들과 이야기를 하곤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신 노인들은 전부다 할아버지들이었고, 할아버지라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원인을 다음에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산탈린 시대에 한인남자들은 몽땅 일보스파이로 몰려 잡아가곤 하였기 때문이다. 부분적 할아버지들은 모스크바에서 살다가 불운분자 가족이라고 집에서 내 쫓겨 아이를 데리고 남의 집 지하실에서 숨겨 살면서 어둠 집노예라고 별래드 하여 죽곤 하니까 목숨을 아껴 살아 남았다고 하였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로 감출 수 없었다. 참 자유란, 인권이란, 어떻게 가진 물건이냐고 하니까 필연적으로 강제 하였다. 대회에서 연변자들은 인권을 박탈당한 한인 무리들이 강제 어둠당한후 어리-저리 불려 다니면서 닥치는대로 자고 먹고 병나서 길가에서 죽어서 되는 대로 라불어 자리를 데우던 과거도 땅을 잃고 나라 잃은 백어름동들의 말구덩이판과 노년 원동에서 살던 백어년 천이 백만 무리가 오늘에 와서 문화 자치라고 가지고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문화협회 활동성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호르라 중에서 남스웨덴이나 라노 여성이 라노비아 공화국 리가 국립 대학 역사학 박사였지만, 이 여성의 호르라 회장의 공기를 폭파식하듯 새로운 문건을 내려고, 한인들은 문화 자치가 아니라 영혼도 포함한 완전한 민족 자치를 가져야 된다고 영달하였거나 회장에 노루케야노브 최고소베트 상임 위원장을 앉혀 세웠다. 그녀가 이 공언 하던 1937년 강제 어둠 직전 약 3개월 전에 한인 자치구역에 대한 노련 최고소베트 정령이 있었으나 이 정령은 강제 어둠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이제 와서 한인 영예 회복에 대한 정령이 있었던 어 자치구로 회복 되어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 당시 문건상으로 그런 정령이 생장하였는지, 그 정령이 현실을 어루지 못한 원인으로 지금 와서 누구든지 나서야 중앙 간부층에서 관심을 돌리지 않을 관계로 한인들은 부분적으로 그에 대하여 상기 시키고 있으나 별 전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대회는 모스크바 국립종합 대학 역사학부장 박리하일 박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 위원회를 신리하고 각 공화국 단위로 문화협회를 조직할 것을 결정 하였었다. 그후 노련이 붕괴 되면서 전연적 문화협회가 국제문화

협회를 개조되었다. 그 당시에는 문화협회가 자기 규약 강령대로 사
업하였기 때문에 사 없어 단순하였으나 현재에 이르러서 문화협회는
분산되어, 북한 정책을 지지하는 범민련, 조국통일속진회, 통일 등 사회
단체들이 생겨 균형을 끌어 당기고 있으며, 그 대신 문화협회는 뜻기무
고 갈라지고 하여 빈약한 편이다. 무르베코스탄에는 그 후 항두막이 변하
여 "재생여단" 단체가 조직되어 문화협회와 힘을 합쳤으며 균세
함으로 문화 강령을 추진시킬 대신에 따로 단 배를 타고 문화세계
를 가려 하나 불쌍한 민병들은 "이런 배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심
못해 곤란한 행포에 처하여 있다. 내 생각에는 두 동강이 난 조국을 통
일시키자고 노력하는 전 재소환원들은 이 끝 사회단체를 통일시켜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통일된 뜻으로, 균세의지로 조국통일로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되겠다고 열정한다.

나는 1990년 8월에, 서울 문화방송 협회의 명의로 초청받아 가는
"조선공화노동단"의 명의로 무르베코스탄에서 9명이 가는 중 한 명으로
로 한국에 갔었다. 나는 본래 북한에 조선군 소속으로 들어가 았다가
조선군대가 철퇴 될 때 조선국적을 접수하고 북한 공민으로 주로 조선인민군
소속으로 1958년까지 있는 관계로 북한은 잘 알며, 전쟁시 대전, 인
원 서울에 가 있었으나 남한 행포는 잘 모르는 행포였다. 나는 남한
으로 떠날 때 나의 마음은 어느 정도 조인하였던가 그것은 내 자신이
남침한 북한 연변군의 한사관으로 처, 그 남침의 사십주년에 제하
여 남침을 반성한다는 것은 빈번히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러나 나는 이 전쟁에 당시 공산당원으로서 상부의 명령을 받아 참가하
였다는 것이 어느 정도 나의 마음을 안냈었다.

나는 사십년이 지난 다음에 김포 비행장에 내려서나 내가
1950년 9월 중순에 인천에서 후회할 새 지나가 버린 그
현모는 영영 없어지고 신기한 새로운 지역에 도착한 것은
뜻밖이며, 서울 시내에 가깝아 가면서 영등포 비행장을 들으
나 그 비행장은 없어지고 여의도 새도시가 건설되었다고 82년
새로 문화방송 회사에 도착하게 되었다. 서울이 유럽 새 도시가
되어 그 웅장성, 아름답음이 나의 마음을, 아나 우리 일행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였으며 그것은 우리 민족도 참 어렵게 굉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수도를 갖고 있다는 자부심에서 심장길에서
 출타 나오는 마당이였기 때문이었다. 우리 일행은 서울에 도착하여 6.25
 40주년 행사에 참가한 다음 수원, 대전, 경주, 동남 복산까지
 가면서 곳곳에 건설되고 세워진 대공장들과 공업시설들을 주
 경하는 한편 아름다운 이룩하게 건설된 세도시들, 농장을
 농촌들을 한눈에 보았다. 참 어모든것들은 한국인들이 손으로 뚫
 아놓은 기적들이로구나, 생각하면서 어디로 가나 한국인들이 살
 고 있는 곳은 생동한 생활의 모습이 활기있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다 보았다. 우리 일행은 휴전 정계선도 보고, 개성 정계선 단판
 지역 관물집도 보았다 우리 일행중에는 강상호란, 권복한 내무성
 차장도 지냈고, 관물집 정계선 단판 조종석 부석 대표로 2년 동안이
 나 지내신 당시 80고령에 정황하게 바쁜 손으로 관물집 회
 실내에 양측에, 놓여있는 회전의자를 가르치며, 바로 저리 저리
 리에 내가 2년동안 앉아 일하였다고 하였다. 우리 일행은 서울
 까지 돌아와 저녁에는 남한에 월천만에 달하는 수효를 살고 있는
 영산가족 대표들과 만나 여러가지 담화 들어 왔고 그 이튿날에
 모스크바로 출발하게 되었으며 우리 일행중에는 80세 넘는 노인들
 이 다수였었다. 그들은 김포비행장에 가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정하면서 슬픈 눈물을 흘리었다.

1992년 2월에 나는 서울 중앙일보사의 초청에 의하여 한국에 가게
 되었으며 까자호 공화국에서도 정물 선생이 초청받아 나와 함께
 가게 되었다. 그 때에 우리들은 중앙일보사 주선에 의하여 여러가지
 상봉되어 왔는데 가장 길은 영상을 남긴것은 국제 인권호 한국연방
 김 위원장과 의 상봉이였다. 우리들은 김위원장을 통하여 재노고라이인
 유가족들의 가장 앞은 불제를 해결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 아픈 불제란
 우리 유가족들중에는 40여년 경과하는 동안 북한에서 숙청당한 다
 기 남편이나 아부지의 증적을 모르는 것이였다. 우리들은 이 숙청당한
 인원 451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면서 국제 인권봉호 위원회와 유
 민 협회에 널리 알려 달라고 건의 하였다. 끝으로 김위원장은 정상진
 위원장에게 백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우리들은 그 좌석에서, 앞으로

유엔 기구를 통하여 우리문제를 꼭 해결한다는 약속을 받고 나왔다. 1994년 10월 26 일에는 구국전선의 초청을 받아 다뉴켄트에서 91명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우리 일행은 서울 돌림퓌크 대회실에 28 일에도 도착하여 알게 될것은 대회명칭을 "북한 민주화와 인권 회복을 위한 94 서울 대회"라고 1명 1명 할것으로 알게 되었다. 대회에서는 각 사회단체 대표들의 축사가 있을때 조선 민주통일구국전선 상임의장 박갑동 선생의 구국전선 기조 보고가 있은다음 여러 대표들이 호소문, 메세지 들을 낭독한다음 대회의 결이 불드 채택 되었다. 그런데 대회에서 아주심한 정신적 충격을 준 물건은 기조 보고 다음에 이복순 상임위원이 낭독한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호소문"이었다. 그 호소문을 낭독할때에 장내에 가서 여러분들은 눈물을 감출수 없었다. 우리 대표단 중에서도 아버지를 김일성에게 ^{안산}당한 허가미 딸 허리라, 역시 아버지를 북한 노동당 형제들에게 빼앗긴 김동철의 아들 김와설리, 김원길의 아들 김로베르트, 남편이 반김일성 현이로 처단당한 ^{박효익} 구국전선 위원 4명을 완전히 목노아 울었다. 94 구국전선 서울대회는 대성황리에서 진행 되었으며 전체 참가자들이 리지를 받아 각기 목적을 달성하였다.

대회 이후에 구국전선 대회에 참가하였던 한국 정외에 거주하는 외국 대표들은 진주시 연극연성자 사회단체, 문화 및 과학계 인사들의 초청을 받고 가는 길에 박갑동 선생의 출판지 상현준 단거리애 들러 선생이 한생하신 집, 세움 영지, 여러채의 건물도 보고 또 선생의 고향친구, 친척들의 따스한 환영과 선물로 다뉴 받았다. 진주시 동남 여관 회의실에서 우리 전체 대표단을 위한 환영회는 제2 서울 대회와도 유사하였다. 박선생의 이전 서물고보 때, 동경 와서다 대학시절, 이전 광안루의 운동장이서 젊, 어린 남노당 총재로 개설 때 히 양과 사선을 같이하던 친구들이 줄잡아 나오면서 구국전선 대표들을 열렬히 축하하고 보았직한 선물도 안겨 주었다. 우리들은 진주시에서 1492년 앞전 왜란시 유사 길은 전설을 남긴 무뎌히 내려 내리는 남강 한바위 절벽에 놓여있는 녹석누, 또 그 아래에서 왜국 괴수 한생을 끌안고 자기 목숨으로 입살노려운 적에게 죽음을 주어 영생불멸의 위훈을 세우고 나라의 흥신이된 기생 애국열사 구룡거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위훈을 대대 눈눈으로 내려가면서 자랑하기 위하여 남강을 걸쳐 놓은 남강 다리 좌우편에는 롱거리 보석반지를 상징한 원형문, 이 문은전들은 이미없는 보훈사물언것어 아니라 한국인들의 피와

목숨으로 애국어진 자랑스러운 전통들의 무적들이다. 축석수는 남강을 끼고 아래로 불어 오를 때에 보면 청암 절벽에 울러 앉은 큰 동선 같기도 하고 시가지에서 공원을 가르치고 바쁜길로 오를 때에 보면 구룡능에 호대를 잡은 대종굴 같기도 하다. 이 아름다운 축석수는 일진 왜안사에 권주사와 함께 왜적들에게 진주사람들이 땀땀투사하게 항거한 걸린 적들의 손에서 두번이나 활취하는 전예없는 권주의 오해였다 때 물에 축석수로 들어가는 출구의 오른쪽에는 "남행의 동산"이라고 쓰고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글꼴이 새겨져 있다: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대!
해와 달이 이 언덕은 영원히 보호하리라."

이 글꼴을 읽은 다음에 이 언덕의 전 면모를 아라, 관람자들은 그 언덕의 땅을 조심히 밟을 것이라곤 나는 생각하였다.

우리 일행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대전시 부근 문정리에 정거하여 하룻동안 묵으면서 한인들이 자면의 새레를 베어들어 준 악수모양 조하고, 독립방틀관도, 또 에스빠우니도 구경하였다. 참 에스빠-94는 한류에 단성한 과학과 기술 문화등을 간단히 요약하여 전라한 기록적인 상영실이기도 하였다. 우리 일행은 전라회관도 40여년 우리 조국의 단성한 기술에 대하여 만족감과 영예감을 느낄 수 없었다.

우리 일행은 조국 해방투쟁에 들어가기 전에 조국해방기념관에서 박갑동 상임 의장을 앞에세우고 기립하여 해방될 조국에 예절을 풀한 다음 장엄하게 차려놓은 현관에서, 일제로 인하여 우리 조국이 함방될시에 일부 조선 국민들은 애국 지상어린 영도자들의 지도하에 능망의 무리처럼 기여하고 있는 일제강점자들에게 투항함이 없어 싸우고있는 그 환경을 묘사한 사판을 보게되었다. 이 사판은 위대한 러시아 군대가, 강점하여 들어오는 불란어 군대에 최영적하게 격을 주고있는 장면을 묘사한 "보로진산꼬에 쓰라세니예" 사판 (보로지노 전쟁) 과도 상사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대전사판에 묘사된 일제대한 항거전은 위대한 영광 허위장군이 지도하였다는 것인바, 우리 일행의 관중들에게는 그 위대한 애국자 허위장군의 손자 허진씨가 계셨던 것이다. 허진씨는

사판에 묘사된 높은 곧 전후지휘소를 가르치면서, 바로 저고지에서 허위장군이 전후를 지휘하였다고 하신다음, 할아버지는 십배이상 넓은 적들의 압력에 의하여 북으로 밀리다가 어느한 전후에서 전사하시고 남은지 군원들은 북으로 계속 후퇴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 시체는 여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조국대쪽 열사 묘지에 안치되어 계신다고 말한 다음 자기 할아버지의 위대한 공훈을 한국정부는 대단히 높이 평가하여 사후 건국훈장을 수여하였어라, 그 높은 정부의 표창은 할아버지의 직분으로서 자기가 받아 보람하곤 있었다고 하였다. 우리 일행은 방물원에 서 나오는 길에 허위장군의 묘지에 가서 돌아보았다. 구국권선 일행은 대전시에서 많은것을 보고, 많은것을 배우고 깊은 감상에 잠기며 서둘러 오는 길에 서쪽편으로 멀리 황해바다를 바라보며 달리는 배바스에 몸을 실고, 평면으로 무속으로 양양 바다와 같이 넓은 광야 옥호에서 어찌 근방 후후를 끝낸 배바를 볼 수가 하리런 날고 높은 고지들과 푸른 노나무와 새발바갈게 울러서 아름답기로 한 장엄한 큰산 영에 이르기까지 볼수록 폭은한 마음이 놀리고있는 아름답은 별장과도 유사한 농민들의 살림집들은 우리들의 정신을 배배 앓아 가고 있었다. 산기슭아래에 집들이 몰락아 조밀하게 서고있는 출가에 우리 배바스가 잠간 정거하였을시 구경참 농민의 정원을 들여다 보면 마담하고 은택스럽게 꾸러진 원채큰집 좌우옆에는 벽이 부러질 정도로 각종 곡식으로 적산 되어 있는 창고들이 있는가 하면, 정원^뒤중에는 땅에는 각종 과실나무들이 무거운 짐을 부러우고 쉬고있는 한도면 아직까지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감나무들은 보기 좋고 안좋은 과실들을 달아가지고 지나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을 바라보기도 하는 것과 같아였다. 그런데 큰 기화집들에 마담은 뒤죽박죽대로 적은 연적을 차지하였기에 나는 그원원을 집주인한테 물으니 그는 대답하기를, 이

땅은 매평당 높은 수확을 주기때문에 농민의 생활이 있어서 각 평방 메타
 가 의미 큼니다 하였다. 매평당 수확이 10-15 톤 메타 수확되는게
 산으로 보면 매평당 35-50 킬로그램이 메타 수출되며,
 매 평방 메타를 보면 1.2-1.5 킬로비, 쌀로서는 10-15
 킬로그램이 수확되니, 돈으로 환산하면 한 평방 메타가
 밑천에 5.0-6.0 달러의 미화를 주는데 왜 타당을 얻
 게 자리잡을 필요가 없겠습니까? 하였다. 다음 내가 혼자서
 계산하여보니 농민은 일년에 오정보의 땅을 달구면 십만 달
 라를 벌수 없으며, 수확고를 좀 높이면 15만 달러까지 벌수있을
 것을 계산하였다. 그러니 매월농민의 소득은 얼마나 될것인가 대강 짐
 작할수 없으며 그 반년에 북한농민의 소득은 언리나 어린수준
 에 오를것인지 생각만 하여도 속이 칸칸하다. 우리 일행은 최신
 수준으로 건설한 한국의 고속도로, 좌우로 세줄씩 끝까지 억울신
 전같은 현를을 가로하고 농산물, 공업산품을 공백이로 적재
 하고 줄 짙어 앞을 다둑어 달리고 있는 화물차들을 보면서 어
 느 드 벌서 기아 자동차 공장에 도달하였다.

기아 자동차 공장은 "현대" 자동차 공장에 비하여 그 범위로보아
 능가하지 못하나 시간적으로 볼때에 이 공장은 최신키를르 장비된
 공장이며 아직 도덕적 마찰과 거리가 먼 최신헌, 최신키다 자동차
 들이 연달아 꼬리 붙고 나오는 계열식 기계공정 생산이다. 우리 일행은
 주로, 단조, 열석 조립공장등을 지나가면서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수없는 생산 기계 기술공정들을 자동기계
 시설들의 호상 작동으로 실행되는 것을 볼때 시간의 흐름이
 어떤 과학 기술적 변화를 이룰수 없다는 것을 상상케 하였다.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라 물어본 결과 매월 봉급은 3천
 내지 5천 5백 달러까지 번다고 하였으며 그 외에 실행하는

64.
기술공정의 가치와 시간상 대노에 따라, 충감을 더 낼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신들이 생산하는 자동차 값은 얼마나 되
느냐고 물으니 음용차는 약 7천 달러로 붙어 2만 달러
까지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아 자동차공장은 가장 최신식 기술로써 장비된 공장
으로서 앞으로 한국에서 가장 전망성있는 공장이라고 우리를 영내
한 기사를 알리었다. 공장을 떠난 우리 일행은 벌써 저복터지는 해를
서해 바다편으로 보며 별다른 달리 있는 비버브 안에서도 고향 풍경이
들려서 흥겹은 맛을 느끼며 자동차 운전기사가 틀어 놓은 비디오
무화기를 흥하여 한계러, 한국 형제 자매들의 목소리, 들을수록
유정한 음성을 들으면서, 진풍을 새로운 재래의 감동에 피르하여
전 버리를 뒤두면서 어느듯 벌써 서울 "북산" 호수에 도착하였다
비버브에서 내리자 "북한 인민화 협회"위원장 리영길 선생은 광
고하기를: 내일 아주 중대한 초청들이 있으니 모두가 밤들을
잘 꾸미라고 하였다. 사실 그대로, 우리 일행은 아침 식사후
10시가 되자 비버브를 타고 서울에서 제일 높은 60층 극회형
사에 가서 이주화 국회 위원, 유성화 국회 위원과 리한중
국회 총무와 만나 좌담회를 갖게 되었다. 자유롭고 자연스
럽은 좌담회에서는 남한의 사회, 경제 발전에 관한 제문제
들과, 남북한의 관계 문제와 관련하여 통일방안에 대하여
주요 논의를하였다. 좌담회에서는 박갑동 선생과 여영길 선생을 회
촉하여 구국전선 상무위원들이 다소 말슴들을 하신다음 그 고객
들과 같이 점심식사로 같이하게 되었다. 점심식사 후에는 여영길 선
생의 주선에 의하여 해외동포모국방문추진회에서 주최한 한강에서의 약
2시간에 걸치는 배놀이도 강제 무량하게 (하거)되었다. 우리 일행은
배에서 내리자 박갑동 구국전선 상임의장을 따라 국회 정문 회의실
에서 김종필 대표위원과, 외무총장 나웅배씨와, 국회 대
련인 박범진 씨와도 만났으며, 안전계획부장 남영식 선생과도 만

났다. 하지만 남에서도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 국제적 정치 경제적
 의식과 앞으로의 과업에서 꼭 해야 할 과제를 들어 대하여서 말한 것
 으니까 조국통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의 조국통일은 꼭 평화
 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위하여서는 남북 대립들의 평화적
 현상, 경제적 연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상호 상임교류, 연방기업소 등
 설치와 이산가족들의 급속한 접촉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해
 왔다. 좌담회가 계속되는 한편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기관들이 연정
 같이 참여하여 주신 지역 식사로 갈아 타고 여러가지 기념품도 많이
 받게 되었다. 우리 일행은 높은 인사들과의 만남이 끝난 다음 다시
 목산 여관에 와서 약이약 흥별의 하룻밤을 보내고 김포 비행
 장에 나오게 되었다. 새벽에 몸을 실고 한강을 오른편으로 보며 공항까지
 달리는 동안 문어진 한강다리를 통하여 영등포 비행장 다음 김포행장
 불길처 인천항까지 또 그로불어 9월 15일에 대관병의 처지로 도보를
 큰길 옆 오솔길로 몇번이나 사선은 배치하면서 서울 중앙청사가 들어오던
 일들의 머리에 쳐오른 다음, 서울 제2차 구국전선 대회에 대하여 모든
 일이 잘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박갑동 상임의장은 물론, 그러나 처음으로
 구국전선과 공동전선을 합의하고 모든일에서 동참하여 주신 "북한인구화
 협의회" 위원장 리영길 선생의 일이 얼마나 고라운지 잊을수 없겠다
 고 생각하였다.

공항에 도착하자 비버스에서 내려서서 다시 동쪽으로, 서울쪽
 으로, 삼각산 쪽으로 도리키 보이며 활막 북소리:

「한국아! 잘있거라, 나라의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
 여서 영원히 전세계에 빛나라, 그러면 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후손들도 명예감과 자존심을 얻으리라.」 외쳤다.

1995년 7월 31일 다뉴겐스에서 장학봉